

설부른 포퓰리즘 中企·서민 멎는다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 옥죄 시장왜곡 초래

친서민 정책과 이를 위한 잦은 정책개입이 심각한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부실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때리기식의 여론몰이와 급조한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정교한 서민지원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소금융엔 미소가 사라졌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부 신용 5~6등급도 미소금융 대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출요건을 완화한 것이 최근이다.

정부가 당초 7등급으로 제한됐던 미소금융을 5~6등급까지 확대한 것은 이들이 하위 신용등급보다 신용이 좋음에도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4~5등급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 5등급으로 계속 서민금융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대상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 더 큰 모순에

빠진 것이다.

정부개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금융권의 서민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탈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내렸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출자격심사가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6~7%에서 3~4%대로 낮춘 것에서도 정부 개입의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정부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으로 당초 6.1%~6.8% 올리던 방침에서 물러나 삼성화재가 4.5%, 현대해상이 4.1% 인상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당장엔 정부 입김에 인상폭이 억제됐지만 향후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책을 내놓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발을 뺀 모양새도 도마에 오른다. DTI 완화는 일부 집부자들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 친서민 정책과 대치되며 철회했다. 가뜰이나 침체에 빠져 있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내세우면서 불공정하도급과 납품단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납품단가 문제는 정부가 간섭할 영역이 아닌 사적인 계약의 영역에도, 정부가 납품단가를 올려주면 중소기업이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자본주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경쟁할 자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명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현선 기자 griffin@



"가자 섬으로" 절정의 휴가기간을 맞은 6일 오전 인천연안터미널을 통해 연안 섬으로 휴가를 가려는 한 외국인이 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중정부 LCD패널 공장 허가 지연 삼성·LG 애간장 탄다

시장잠재력 커 현지공장 설립 필수
중선 내수침체 우려 투자승인 미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의 LCD 패널공장 설립 허가가 늦춰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의 하나인 중국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LGD)는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로부터 중국 LCD 패널공장 투자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양사는 이르면 올해 3월경 중국 정부의 공장설립 허가가 나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났지만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허가가 늦춰지는 것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더디다 보니

상당수 LCD 생산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갔다"며 "삼성과 LG 외에도 이미 중국에 많은 LCD 패널 업체

들이 들어가 있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3개 외국 업체의 투자를 허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BOE, TCL 등의 공장 설립은 이미 승인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업체인 삼성과 LG 중 1개 업체만 허가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와 경기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 승인을 늦추는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 과열 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5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과잉현상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중국 정부로서는 외국자본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점도 허가 지연의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런 중국 시장의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가 공장 승인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중국의 소비재 시장은 2000년~2009년 연평균 13.8% 성장했다.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며 "물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시장도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 시장 자체의 매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는 LCD 패널 가격 하락 추세와 재고 증가 등의 해결책을 중국시장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LGD 관계자는 "중국의 수요가 저조했다기보다는 LCD 생산업체들이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가지고 측면에 있어서 상반기에 부진했던 것"이라며 "올해는 중국시장의 TV수요가 적더라도 2011년 이후 중국이 TV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수요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공장 설립은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오피니언 리더
꼭 읽어야 할
글로벌 명서 50選

오피니언 리더는 어떤 책을 읽을까.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비즈니스 관련 추천도서 톱 50을 선정해 소개했다. 경제에 대한 상식을 바꾼 '발칙한 경제학'으로 유명한 스티븐 랜즈버그는 '큰 질문들(The Big Questions)'이라는 책을 통해 철학의 심오한 질문들은 물리학, 수학 및 경제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

월가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헤친 '라이어스 포커'의 저자 마이클 루이스의 신작 '빅쇼트(The Big Short)'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날카롭게 추적했다.

기자로 활약 중인 케리 리블린은 '깨져버린 미국(Broke USA)'을 통해 부자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이른바 '워킹푸어'들을 이용해 어떻게 부를 확대하는지를 폭로했다. **2면에 계속**
배준호 기자 baejh94@

KB국민銀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민병덕 행장 "성과없는 지점 과감히 통폐합"

KB금융이 명예퇴직 실시 등 비민중 치료를 위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3일 상품그룹 등 3개 그룹을 폐지하고 신탁·연금본부 등 6개 본부와 9개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해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민 행장은 지난 5일 한국은행 기자들과 만나 "잠재여력을 위해 신입행원을 뽑으려면 본인 희망에 따라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앞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해 2198명을 감원했지만 그 이후엔 소극적이었다.

민 행장은 "솔직히 그동안 생산성 부분은 소홀한 것이 맞다"며 "사람을 줄이는 소극적인 전략 대신 사람을 활용해 '파이'를 키우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 행장은 이를 위해 본부 조직을 감량하고 일선 영업 조직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 행장은 영업 강화와 관련해

"지역에 따라 기존 콘셉트에서 벗어나 소형 점포라도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은 들어가고, 성과가 없는 지점은 과감히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 행장의 행보는 여론대 회장이 취임사에서 "KB금융은 비민중을 잃는 환자"라고 언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노조 역시 현재 KB의 문제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살 빼기 작업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비용 고효율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학자점포 통폐합, 명예퇴직 실시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 것이란 것이다. **최영희 기자 chaosbui@**

It's Beautiful

도시의 표정을 디자인하다

금호건설의 LED갤러리 빌딩엔 365일 날마다 다른 표정이 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LED갤러리로 세상은 점점 다채로워집니다.

건설은 패션이다! 금호건설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 LED갤러리



현대차 “기아차 할인판매 말라”

판매 부진하자 잘나가는 계열사에 판지걸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기아차 내수실적과 관련해 현대차 영업본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 이들의 불편한 심기가 기아차 영업본부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어 관련업체가 주목하고 있다.

8일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 내수판매 호실적과 관련해 현대차 영업본부 내부적으로 다양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며 또 다른 실적(?)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실적기준으로 전체 내수시장 11만5701대 가운데 현대차는 4만9055대를 판매했고 기아차는 4만5100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만 따졌을 때 현대차가 기아차 실적보다 4000대 가까이 앞섰다.

그러나 RV를 포함한 승용판매로 통계를 집중해보면 상황은 역전된다. 현대차가 RV 7782대를 포함해 총 3만2380대를 판매한 반면 기아차는 RV 1만2449대를 포함해 총 4만2364대 기록을 세웠다. 승용 판매면에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오히려 1만대 가까이 앞선 셈이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관계자는 스타렉스의 집계가 제외된 상태에서 승용집계를 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월 5000대 안팎으로 팔리는 스타렉스(7월 4508대)는 현재 상용화물차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결코 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현대차 영업본부의 이같은 '실적 뒤늦게보기'는 그 자체가 영업거점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함에도 기아차 판매에 밀리는 상황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방증이다.

최근 기아차가 가격경쟁력을 도입하고 정해진 할인을 이외에 별도의 추가할인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도 현대기아차 그룹 고위 관계자의 입장에서 시작됐다는 후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아차 입장에서도 호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굳이 추가할인으로 제삼 깎아먹기를 방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아차가 가격경쟁력을 도입

해 정당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해진 할인 이외에는 추가할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기아차의 점유율 상승은 수입차나 국내 경쟁업체가 아닌 모기업(현대차)의 점유율 하락을 가져왔다는 게 현대차의 고민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아반떼와 그랜저 등 신차효과가 두드러질 하반기에는 다시금 현대차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이라며 기아차의 최근 내수 승용판매 1위는 단기적인 순위 바람으로 분석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볼 보듯 뻔한 단기적 순위 바람에 현대차가 연연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양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력원이 필요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서해 합동훈련 참가하는 KF-16 전투기 서해 합동 기동훈련에 공군 전력으로 참가하는 20전투비행단 KF-16 전투기가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앞서 AGM-65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단 자체 훈련임무를 위해 출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리비아서 5000억 공사 수주

외교마찰 불구 경제활동엔 영향주지 않을 듯

대우건설이 한국 정부와 외교마찰을 빚고 있는 리비아에서 한화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수주도 '스파이 사건'으로 불거진 양국 간 외교 문제가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한편 경제활동에 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 1위 현대건설도 지난 달 리비아 트리폴리 화력발전소(12억달러) 공사를 수주한 바 있어 이번 대우건설의 수주 성공은 노심초사하던 이 지역 진출기업들에게 또 한번의 희소식이 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리비아 국영전력청(GECCOL)이 발주한 즈위티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5116억원(4억3800만 달러)에 수주해 지난 5일 리비아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리비아 제2의 도시 벤가지에서 남서쪽으로 140km 떨어진 즈위티나 지역에 750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500MW 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에 250MW 규모의 스팀 터빈 1기와 배열회수시설(HRSG) 2기를 설치하게 된다. 대우건설이 설계, 주기기 구매, 시공을 일괄적

으로 수행하는 이 공사는 올 11월 시작돼 2013년 5월 끝날 예정이다. 한편 1977년 리비아에 진출한 대우건설은 지금까지 2000km가 넘는 도로 공사를 비롯해 정부종합청사, 트리폴리·벵가지 메디컬센터 건립 사업 등 총 200여 건에 11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미수리타·벵가지 복합화력발전소, 트리폴리 JW메리이트 호텔, 트리폴리 워터프론트 외국인 전용 고급리조트 공사 등 총 15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측은 리비아가 현재 전력난이 심각해 정부 차원에서 전력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리비아에서 발전소 공사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

금감원 '밥그릇싸움' 재연

월말 임원 인사 앞두고 줄서기 벌어져 한은 출신·내부 출신간 신경전도 고조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인사를 앞두고 해묵은 밥그릇 싸움을 재현하고 있다. 한은은행 출신과 내부 기관 출신간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줄서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금감원이 매번 인사마다 갈등을 일으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임기만료된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과 양성용 중소기업금융서비스본부장의 후임 및 일부 국실장급 인사를 소폭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말고 있는 본부장 후임 인사를 두고 한은 출신과 내부 출신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각 출신별마다 소위 '직속 출신 선배들이 되어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지라 유력하다고 소문이 난 인사들을 따라 내부 '줄서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빙성 없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다. 대부분 '한은 출신인 모 인사가 유력하다', '전문성을 높고 보면 신용관리기금과 보험감독 출신이 와야 한다' 등의 '카더라' 형태의 내용으로 내부 분위기도 술렁거리고 있다.

신과 담당 권역 출신간의 신경전은 이미 해묵은 이야기이지만 향후 과제를 생각한다면 내부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다져 외풍으로 금감원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신경전에 집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조차 KB금융지주의 종합검사 발표와 리용찬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눈치보기와 뒷북이라는 말이 많은 가운데 내부적인 갈등은 금감원의 이미지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금감원의 권위가 예전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금감원에서 금감원의 갈등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경영 관련 추천도서 50

NO.	책명	저자	NO.	책명	저자
1	큰 질문들(The Big Questions)	스티븐 렌즈버그	26	동일한 경제학(Identity Economics)	조지 아케로프
2	빅 리치(The Big Rich)	브라이언 버로	27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s)	스티븐 드로비니
3	빅 쇼트(The Big Short)	마이클 루이스	28	I.O.U.(I.O.U.)	존 액제스터
4	깨져버린 미국(Broke, USA)	게리 리블린	29	왕 오일(The King of Oil)	다니엘 얀만
5	골드만삭스 추적하기(Chasing Goldman Sachs)	수진느 맥키	30	지미 스투어트는 죽었다(Jimmy Stewart Is Dead)	로렌스 코틀리코프
6	상식의 실패(A Colossal Failure of Common Sense)	로렌스 G. 맥도널드	31	라스트 맨 스탠딩(Last Man Standing)	더브 맥도널드
7	크래시 코스(Crash Course)	폴 잉크리시	32	금융의 재왕들(Lords of Finance)	리아퍼트 아메드
8	위기 경제학(Crisis Economics)	누리엘 루비니	33	매치 킹(The Match King)	프랭크 파르노이
9	악마의 카지노(The Devil's Casino)	빅키 워드	34	신보다 많은 돈(More Money Than God)	세바스티앙 알레비
10	아메리칸 드림의 교육(The Education of an American Dreamer)	피터 피터슨	35	합리적 시장의 신화(The Myth of the Rational Market)	저스틴 토크스
11	월가의 종말(The End of Wall Street)	로저 로렌스타인	36	아무도 듣지 않겠지(No One Would Listen)	해리 마르코폴로
12	페이스북 효과(The Facebook Effect)	데이비드 커코퍼트릭	37	온 더 브링크(On the Brink)	앤리 폴슨
13	잘못된 선(Fault Lines)	로구람 라칸	38	파트 두(Past Due)	피터 굿맨
14	살아있는 역사, 버냉키와 금융전쟁(In Fed We Trust)	데이비드 웨슬	39	프리시시리스(Priceless)	윌리엄 폰드스탁
15	첫번째 태풍(The First Tycoon)	T.J. 스타일즈	40	퀀츠(The Quants)	스콧 퍼터슨
16	풀스 골드(Fool's Gold)	질리언 테트	41	베어스텐스의 흥망성쇠(The Rise and Fall of Bear Stearns)	앨런 그린버그
17	대륙(Freefall)	조셉 스티글리츠	42	셀링 아메리카 숏(Selling America Short)	리처드 사우에르
18	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A Gift to My Children)	짐 로저스	43	슈퍼 괴짜 경제학(Superfreakonomics)	스티븐 레빈
19	구글드(Googled)	켄 올레타	44	13인의 은행가(13 Bankers)	사이먼 존슨
20	사상 최고의 거래(The Greatest Trade Ever)	그레고리 주커먼	45	이반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카를로스 리안하르트
21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	리처드 플로리다	46	실재하기 전에 큰(Too Big to Fail)	앤드류 로스 스토킨
22	하이 파이낸시어(High Financier)	니알 퍼거슨	47	월스트리트저널에서의 전쟁(War at the Wall Street Journal)	사라 엘리스
23	카드만 만든 집(House of Cards)	윌리엄 D. 코한	48	그 개가 본 것은(What the Dog Saw)	말콤 글래드웰
24	어떻게 시장은 실패하나(How Markets Fail)	존 카시디	49	당신은 기계가 아니다(You Are Not a Gadget)	제러니 레너
25	위대한 기쁨은 더 어둠이 있을까(How the Mighty Fall)	짐 콜린스	50	제로스(The Zeroes)	랜델 레인

오피니언 리더 꼭 읽어야 할 명서 50선

● 1면에서 계속 수잔 맥키의 '골드만삭스 추적하기(Chasing Goldman Sachs)'는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경쟁사를 누르고 금융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로렌스 G. 맥도널드와 패트릭 로빈슨이 공동 저술한 '상식의 실패

(A Colossal Failure of Common Sense)'는 전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내부에서 직접 지켜본 전직 부사장의 증언을 통해 미국 투자은행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맥도널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리먼 브라더스에서 부실채권 및 전환주 거래 담당 부사

장으로 재직했다. '월가의 종말(The End of Wall Street)'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출신인 로저 로렌스타인이 썼다. 월가의 최고경영자(CEO) 등 180여명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분석했다.

이투데이 漫評 유영수
(yoobil@hanmail.net)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today.co.kr

대표이사·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서성환 편집국장 김중현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 (02)799-2600 팩스 : (02)784-1003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1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99
구독료 : 1부 1500원, 한달 6000원

라스베가스 오리지널 플라잉 기술팀 내한 관객복석을 날아다니는 피터팬!

MUSICAL PETER PAN

여름방학 최고의 선물

2010.7.23 - 8.29 유니버설아트센터

가족할인 30% (3인 이상) 여름방학 맞이 할인 20%

평일 17시 / 토요일 14시 17시 / 일요일 11시 14시 30분(월요일 공연없음)

문혜영 임현빈 이희정 전상진 김은하 외 20명
연출 이원중 작곡 최재광 안무 김경엽 원작 J.M.barrie 각본 강보람

인터파크 티켓 제작 티켓문의 02.3141.3025

대기업은 ‘때리고’ 서민엔 ‘퍼주고’...자본주의 골간 흔들

■親서민정책 왜 문제인가

친(親)서민 정책을 근간으로 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개입은 시장왜곡과 혼란을 넘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대기업에는 ‘때리기’, 서민에는 ‘퍼주기식’ 정책과 개입은 한국경제호(號)를 끌어온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모럴 헤저드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景氣)가 아닌 경제 전반에 두고두고 커다란 부담과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친서민 목소리를 높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는 이전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제기됐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으로 초점을 갑작스레 바꾸면서 그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데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대기업을 타겟으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내세운 것은 기업 성장을 곧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른바 물이 넘

쳐 주변을 적시는 ‘적하효과’(Trickle Down)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정부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장려를 위한 교환을 정책적 유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편의를 보냈다. 제조업 위주의 한국경제에서 아무런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돈을 벌어도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이 돈을 갖고만 있지 고용창출과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며 대기업을 향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회복 와중에서 더 악화된 양극화는 여론의 지방선거의 패배로 귀결됐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180도 핸들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극단적인 편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짜인 청와대 참모진은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친서민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으로 비롯된 현상을 단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갖은 정책개입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무리한 개입과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친서민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벗어나는 경우는 역대 정권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고 강남을 옥죄는 각종 억제책 내세웠지만 집값 땅값은 하늘로 치솟기만 했다.

이처럼 대기업이나 강남 압박의 정책 효과가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상

줄속 친서민정책 문제점	
분야	문제점
금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로 기업·은행 부담 가중 햇살론 대출 증가로 부실 우려 정부개입으로 캐피탈 금리 인하로 기관 부실 금리인하로 심사강화돼 대출 어려워져 자동차보험 인상을 억지로 낮춰 재산상 가능성
부동산	부동산 활성화방안 무기 연기로 시장 혼신
산업	사적 영역인 남몰래 개입으로 경쟁 제한

지방 선거 패배 후 ‘비즈니스 프렌들리’ 급선회 극단적 편향정책 경쟁력 약화·모럴 헤저드 불러 이벤트성 정책 지양하고 근원적 정책변화를 모색

구호는 서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외쳐졌던 사안이다. 구호만 난무하는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개발과정에서 30~40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친중소기업 정책 추진이 단적인 사례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 보다는 생산성 격차가 워낙 큰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통해 R&D 투자를 늘린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속에서 성장을 하지 못했다. 부품조달은 국제화되면서 중국 등에 아웃소싱하게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낙후효과는 멀어지게 됐다. 납품단가 문제도 정부가 개입해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고 1차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보다는 1차와 2차, 3차 하청업체간에 문제가 되고 영세 중소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거래활성화 긴급 관계장관 회의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날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명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을 고용창출의 주체로만 볼 것이 아니다”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면 자연히 경쟁력이 올라가고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술혁신의 주체로 중소기업에 바라보고 R&D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보다는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여부는 부정할 수 없는 과제”로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 사법적 판단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한선 griffin@

러시아發 곡물값 폭등...빵값도 30%올라

지구촌 애그플레이션...제분·축산·외식업체 비상

세계 3위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의 곡엽과 가뭄으로 밀을 포함한 곡물 가격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가게는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 정부는 5일(현지시간)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곡물수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곡엽과 가뭄의 영향이 나오고 있어 곡물 수출금지 조치는 타당하다”며 수출을 금지하는 정령에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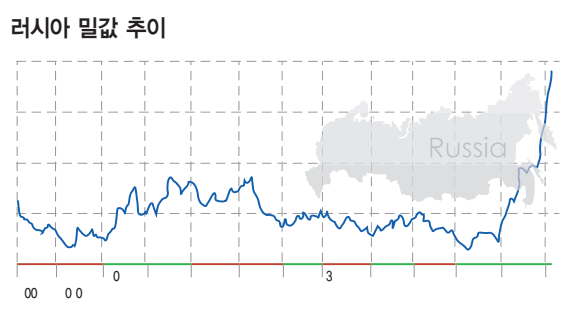
현재 러시아에는 2000만톤의 곡물재고가 있어 이를 방출하면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막상 자국내에서 가격 급등이 가시화하자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푸틴 총리는 자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곡물재고를 입찰없이 방출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농업종사자에게 100여루블을 직접 지급하는 한편 250여루블을 저리 융자해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13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중부와 남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이미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곡물 수확량 예상치도 전년 대비 26% 감소한 약 7000만톤으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수확량도 당초 전년과 같은 수준인 2150만톤으로 예상했지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금지 제한조치에 따른 수급압박 우려로 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9월 인도분 밀 가격은 거래소가 정한 1일 최대 변동폭인 60센트(8.3%)가 올라 부셸당 7.8575달러를 기록해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29일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밀 선물 가격은 수요 증가 기대로 지난 6월 기록했던 9개월래 최저치에서 85%나 급등했다. 밀 뿐 아니라 9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은 6.2% 상승한 부셸당 4.25달러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 급등세는 다른 곡물로도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가 밀을 포함해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수입에 의존해오던 이집트 등 중동 지역에서는 식량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반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제분업체와 사료업체, 식용유 메이커 등 곡물을 주요원료로 하는 기업들도 비상이다. 밀이나 옥수수 대두는 축산사료로 대체되기 때문에 가격 연동이 쉽기 때문이다.

농산물 및 상품 정보제공업체인 텔벤트 DTN의 다린 뉴섬 애널리스트는 곡물가격이 계속 치솟을 경우 8월말이나 9월초까지 빵값은 30%, 피자값은 1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3달러짜리 빵은 90센트, 14달러짜리 피자는 1.40달러 오르는 셈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아이폰·아이패드 보안 무슨 결함 있길래...

獨정부 “개인정보 누출·도청 가능” 경고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대한 보안 결함 지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사용자가 아이폰으로 웹 접속만 해도 악성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아이폰의 웹브라우저 사파리를 이용해 웹을 이용하던 중 PDF 파일을 불러들일 때 CFF라는 폰트를 액세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경우 간단한 웹 접속 만으로도 루트권한을 빼앗길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

만약, 누군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청 등을 위한 악성코드를 웹사이트에 임의적으로 삽입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로 인해 사용자의 패스워드, 이메일, 문자메시지, 일정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도청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시애틀, 트랜즈미크로 등 외국의 유명 보안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까지 나서 아이폰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 정보보안청은 4일(현지 시각)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에 보안 문제가 있다며 애플 제품 사용자에게 공식 경고했다. 독일 정보보안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애플의 운영체제(iOS)를 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에서

일부 웹사이트나 PDF 파일을 열면 해커가 비밀번호, e-메일 등을 엿볼 수 있다”며 “애플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까지 해당 기기에서 PDF 파일을 열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만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애플 측은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개발했다”며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공식 패치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업데이트의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애플이 공식 패치를 적용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순정 아이폰의 루트계정을 탈취, 도청은 물론 아이폰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수상한 웹사이트 주소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아이폰을 통해 절대 접속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웹사이트 접근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모바일 오피스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도청될 경우, 주요 회의나 내부 기밀정보 등이 음성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 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기자 acw@




은행중에서는 IBK기업은행 단독판매!

주택대출 U아독존

하늘과 땅 사이 이렇게 획기적인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은
u-보금자리론 뿐입니다

설계형 (변동) 최저 연 3.68%

더 간편한 신청 절차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형 (고정) 최저 연 5.30%

더 내려간 최저금리
기존 보급자리론 보다 금리가 더 낮아진 상품입니다

IBK기업은행에서 취급합니다

u-보금자리론 신청 안내

보금자리론 홈페이지(www.e-mortgage.co.kr)에서 필수항목을 입력한 후 전화상담신청을 클릭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대출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www.e-mortgage.co.kr / ☎1688-8114

* 당행 야신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정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입인내세, 임대차조세수수료 등 대출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대출금기 후 미상환시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IBK기업은행의 분쟁조정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02-729-6468)
* IBK기업은행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윤리취약점 신고센터 ☎02-729-7400, e-mail : ikethics@ibk.co.kr

서민이 꿈꾸는 행복한 세상, IBK기업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달러의 추락...캐리트레이드의 부활?

2달간 9% 하락...달러 지금 이동

달러도 만만치 않다. 2달 전만 해도 강세를 지속하던 달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재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달러 가치는 실질실효환율(TWI) 기준으로 지난 2개월간 9% 하락했다. 4일(현지시간) 달러는 엔에 대해 85.29엔까지 하락하면서 15년래 최저치까지 추락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 사태로 폭락세를 지속하던 유로 역시 달러에 강세로 돌아섰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1.32달러선에서 움직였다. 달러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유로·달러 환율은 1.6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디플레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달러 약세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이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역시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같갈이

떨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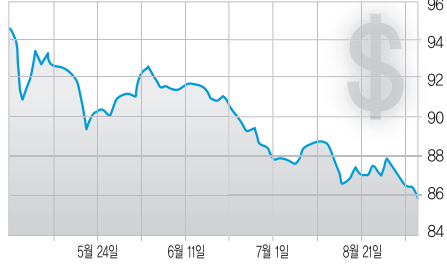
재정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달러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7월 인도 주식시장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38억달러를 순매수했다. 한국과 대만에서도 각각 20억달러 이상의 순매수가 나타났다. 외환시장에서 싱가포르 달러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루피와 말레이시아 링깃 역시 달러 대비 1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달러의 추세적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재현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캐리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마련해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금리가 사실상 제로 수준을 이어가면서 달러로 자금을 마련해 아시아 등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세력이 늘어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확한 캐리트레이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75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이어진 엔 캐리트레이드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달러·엔 환율 추이(단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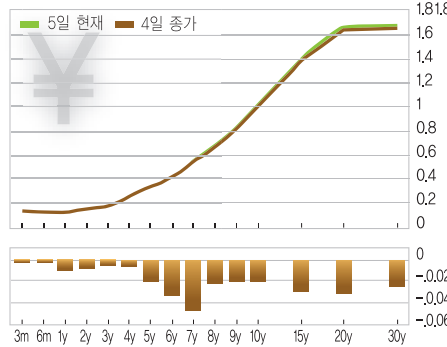
유로·엔 환율 추이(단위:엔)



유로·달러 환율 추이(단위:달러)



일본 국제수익률 곡선(단위:%)



美·유럽 환율방치에 허리휘는 일본

■美·日·EU 자본시장 삼국지 日 장기금리 7년만에 최저·엔화 연중최고...정부는 속수무책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이 팔리고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 가 아니다.

일본 국제에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장기금리는 7년 만에 1%선이 무너졌고 달러 유로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엔이 각광받으면서 엔은 달러에 대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 불안으로 미국과 유로권이 저금리와 자국 통화 약세로 생존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정책 부재로 움푹달라진 일본이 시장의 표적이 된 모습이 역력하다.

일본의 10년만기 국제 수익률은 4일 0.995%까지 하락해 2003년 8월 14일 이래 7년여 만에 1%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일본 경기까지 영향을 미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제에 매수세가 몰렸다. 전날 미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아 경기 회복이 둔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 일본 장기금리도 동반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의 금융완화 관측이었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만기 이후에도 보유를 지속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무게가 '추가

안화' 쪽에 쏠렸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7월 의회 증언에서 '미 경제의 이례적인 불확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2003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를 하락"에 대해 언급하고 디플레이 방지 차원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을 상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도 지난달 말 보고회에서 "연준의 '상당기간' 저금리 정책이 '일본형 디플레이션'이라는 전례없는 함정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피하는 방법은 양적 완화가 유효하다"고 추가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가 이끄는 유럽중앙은행(ECB)도 재정 재건을 서두르면서 금융정책을 완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의 이 같은 관측에 ECB는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는 미국·유럽 당국의 속내에 주목하고 있다.

양쪽 모두 금융완화의 목적을 디플레이 방지와 금융 불안 해소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 통

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의 시장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은 한때 달러당 85.32엔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은 1995년 4월 기록한 2차대전 이후 최고치인 79.75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유로당 112.87엔을 나타냈다. 프랑수와 파운드를 포함해 유로 약세에 따른 내수 확대는 유로 하락에 의한 수출 확대로 거의 상쇄될 수 있다"며 유로 약세를 용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미 정권도 달러 약세를 묵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원동력을 개인 소비에서 수출과 설비투자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그 방증이다.

미국과 유럽의 환율 방치에 일본은 속수무책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본은행의 카드는 바닥났고 거액의 재정 적자로 정부의 정책도 막다른 골목이다.

여기다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뚜렷해

지면서 간 나오토 정부는 손발이 뭉개진 형국이다.

일본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환율과 금리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니혼게이지신문은 5일자 사설을 통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디플레이 상황에서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에 무거운 짐이 될 뿐 아니라 기업활동을 저해해 해외 이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국 내 고용 감소는 물론이다.

노다 요시히코 금융상은 "엔화 움직임이 치우쳐 있다"며 "환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해 환율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의 레가브 수바리오 외환투자전략가는 "일본은행이 엔의 상승을 막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엔화 강세가 아직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다 일본은행의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KYOBO 교보증권 www.iprovest.com

현명한 펀드 관리의 시작

교보증권으로 옮기세요!

- 펀드도 꼼꼼하게 관리 받자! 펀드클리닉 센터
- 펀드와 보험 혜택을 동시에! 무료보험 가입 서비스
- 펀드 유형별로 찾아 볼까? 다양한 펀드 판매
- 펀드투자도 입맛대로!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 판매사 이동제한? 보유하고 있던 펀드를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교보증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고객센터 1544-0900으로 문의해주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가입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유되지 않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환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1062호(2010.3.4~2011.3.3)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발머에게 주어진 4개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뒤숭숭하다. 애플에 시총 우위를 뺏기더니 이번에는 최고경영자(CEO)의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다. 스티브 발머 MS CEO에 대한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다. 발머 CEO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곳은 주식시장.

지난 2년간 MS의 주가는 20~30달러대를 오가고 있다. 윈도 시리즈의 독보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주가 움직임은 거의 보합 수준이다. 애플과 비교하면 거의 치욕적이다.

지난 5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5배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MS의 주가는 역시 보합에 머물렀다.

발머 CEO가 윈도 최대 시리즈로 꼽히는 XP를 출시했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비스타의 약용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발머에게는 부담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킨'을 출시 2개월만에 거둬들여 일굴에 먹칠을 했다. 애플은 MP3 플레이어 '아이팟'에 이어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PC '아이패드'로 연일 대박을 날리고 있지만 MS가 윈도 하나에 정체돼 있다는 비난도 이따서 나온다. 이제는 현역에서 벗어나 기부사장에 몰두하고 있는 빌 게이츠 창업자를 비롯해 발머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IT업체로서 MS는 언제나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인식돼 있지만 블루칩 같은 대기업으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월가의 영향력있는 IT 애널리스트인 제프리스의 캐서린 에그버트는 MS를 '혁신기업'으로 보지 않고 저비용의 빠른 기업으로 시각을 바꾸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 MS는 진정한 혁신기업은 아니었다. MS의 발전은 대부분 다른 기업의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이뤄졌기 때문이다.

MS가 윈도라는 IT산업의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IT산업의 성장은 하드웨어의 진보와 응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S의 최근 고전은 결국 태블릿PC와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산업의 최첨단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MS는 늦어도 내년에는 윈도7을 기반으로 한 태블릿PC를 출시할 계획이란다.

이를 통해 최근 MS의 부진이 과연 게이츠가 손을 놓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발머의 무능함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발머에게는 아직 최소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국제부장) tsmmin@

유럽 정크본드 인기 美 앞선다

국채 스프레드차 2년만 역전 시도

유럽 금융시장이 재정위기 사태를 넘어 급속히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크본드의 인기 역시 미국을 압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럽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미국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줄었으며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역전을 노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 정크본드 가격이 미국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캐럴린치에 따르면 이날 유럽 기업들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6.56%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의 스프레드는 6.49%포인트를 기록했다. 유럽과 미국 정크본드 스프레드 차이는 0.07%포인트로 좁혀지게 됐다. 지난 6월에는 1.31%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유럽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미국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그리스발 재정위기 사태가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6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베스텍에셋매니지먼트의 테오도르 스타모스 신용 부문 공동대표는 "투자자들은 유럽의 더러움을 우려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이같은 우려는 줄었고 투자자들이 다시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유럽 케이블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롤체스터가 최근 성공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의료업체인 케어U.K.와 독일 자동차부품업체 컨티넨탈이 발행한 회사채 역시 인기를 끌었다.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은 'Ba3'와 'BBB-' 등 투기등급이다. 유럽 정크본드의 수익률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화답하고 있다. 6월 이후 유럽 정크본드 수익률은 5.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3.87%에 머물렀다.

민태성 기자 tsmmin@

중국 '세계의 공장' 옛말?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17개월래 최저...GDP성장률도 둔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시가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주요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과일업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제조업마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과열 진정정책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 성장이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는 지난 7월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지수(PMI) 지수가 전월의 52.1에서 51.2로 떨어지면서 1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확장세를 의미하지만 속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4%를 기록해 전반기에 비해 둔화를 보인 것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부부문을 살펴보면 생산지수가 지난 7월에 52.7로 전월의 55.8에서 떨어졌고 신규주문지수는 52.1에서 50.9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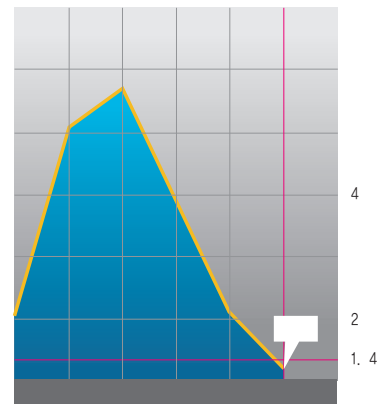
수출주문지수는 51.7에서 51.2로 내려가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고용지수만 50.6에서 52.2로 올랐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GDP증가율이 지난 2분기 10.3%를 기록해 올 상반기 중국 GDP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GDP증가율도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정책에 따라 지난 1분기에 11.9%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둔화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올해 초 부동산 가격 급

중국 PMI 추이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는 부동산 긴축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의 왕칭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 둔화세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중공업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언급했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중공업 등 제조업 위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브라이언 잭슨 로열뱅크오브캐나다 이머징 마켓 투자전문가는 "수출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정책전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회복세 정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에 투자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



중국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노무사태를 일으킨 폭스콘 공장.

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시사했다.

프랑스 2위 은행 소시에테제네렐은 중국의 PMI 지수가 앞으로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골드만삭스도 정부의 긴축정책 영향으로 지난 7월 PMI 지수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신규대출규모 확대로 막대한 자금이 풀리고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제조업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일 "올해 신규대출규모 목표인 7조5000억위안(약 1300조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부실대출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서 촉발된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 위탁생산 제조업체 대만 혼하이정밀의 자회사인 파스콘사 선전공장의 연쇄자살사건과 일본 혼다차 중국 공장의 연이은 파업 등으로 임금상승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중국 제조업 둔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혼다차와 도요타 및 혼하이 등

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올해 들어 일제히 임금을 인상했고 중국 제조업 중심지인 상하이와 선전 지역의 인건비는 올해 20~25% 올랐다.

이에 글로벌 제조업체는 공장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내륙지역이나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이다 텔 중국법인 사장은 "중국 연안지역 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아예 공장을 현지업체에 팔고 파스콘 중국 공장 등 현지 업체에 100% 위탁생산을 의뢰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거주용 토지 공급과잉...고강도 금융규제... 부동산 거품도 꺼진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꺼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며 과일업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일(현지시간) 지난 상반기 5만5000헥타르의 거주용 토지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귀저우주와 베이징, 지양시의 거주용 토지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고 국토자원부는 덧붙였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그동안 빈민촌 개발 등 거주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거주용 부동산 공급이 증가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급을 감안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택건설 비용이 줄어 들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을 끌어 내리는 고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또 세번째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비롯해 2차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을 인상하는 등 부동산시



중국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 마천루 전경.

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거주용 부동산 공급 증가와 함께 지난 70개 주요 도시의 6월 주택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하는 등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도 부동산 대출 또한 억제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의 6월 부동산 대출은 40.2% 증가했다. 이는 3월달의 44.3%에 비해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상반기 신규 부동산대출은 1조3800억위안(약 238조원)을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총 주택대출은 전년 대비 49.6% 늘었다. 이는

2009년 말의 43.1%에 비하면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나 3월말 53.4%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다. 장강 사우스웨스트증권 애널리스트는 "증가폭 감소는 주택 시장 열기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연기준으로 상반기 절대수치가 큰 폭 감소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지난 연말 대출이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약세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관련 지표 역시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태성 기자 tsmi@

증시마저... 글로벌 성적 '꼴찌'

상하이종합지수 올 27%나 곤두박질

중국증시가 올해 들어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 11.9%, 2분기 10.3%를 각각 기록한 반면 올 상반기 상하이 종합지수는 경기 과열 억제책 양상 속에서 연초 대비 27% 하락하는 등 최악의 성적을 내놨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였던 그리스와 함께 휘청거리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남유럽 'PIIGS' 국가들의 증시보다도 못한 결과다.

이같은 중국증시 급락의 주요 요인은 경제보다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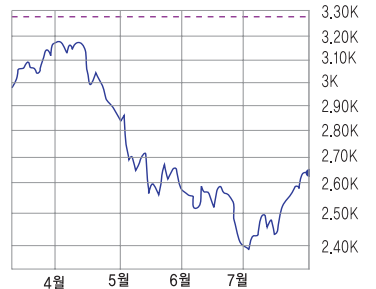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금융위기 후 경기회복 기대로 중국 증시가 급등했으나 올해는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고강도의 긴축정책을 시행해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은행대출 금지 등 강력한 억제책을 펼쳤다.

정부는 이를 들어 벌써 두 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데다 은행 신규대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물량이 쏟아진 점도 증시를 짓눌렀다.

이반달에는 농업은행이 중국증시 위축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를 단행하면서 세계 증시 사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상 최대 규모인 221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올 상반기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기업만 모두 176개, 모집금액은 2127억위안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 4대 은행이 자본 확충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다시 287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가뜰이나 주요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증시에 적잖은 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폭염...가뭄...냉해...농산물 생산 '직격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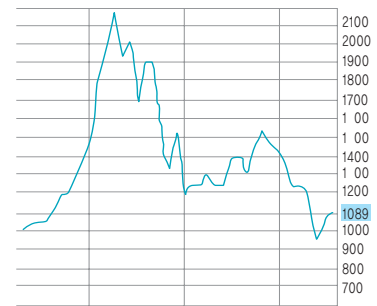
중국이 가뭄, 냉해 및 홍수와 폭염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물살을 앞둔 채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식량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윈난(雲南)성, 구이저우(貴州)성 및 광시(廣西)성과 쓰촨(四川)성 등 서남부 지역에서는 지난 봄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 화훼류 및 과일 등 농작물 생산이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가뭄으로 서남부 5개성에서만 1000만명 이상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었고 중국 꽃 수요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윈난성의 화훼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국이 가장 많은 채소를 수입하는 중국 동북부 지역은 지난 4월에 때 아닌 냉해로 곤옥을 치렀고 내몽고지방에서는 지난 1월에 강력한 한파로 가축 1만 마리가 죽었다.

홍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87만여명의 가옥이 파괴됐고 이재민도 1000

국제 현미 선물가격 월별 추이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국가재해대책본부는 지난 3일 홍수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가 15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21일 700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유실됐고 직접적 경제손실만 1422억위안(약 25조원)에 달한다고 국가재해대책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포함 동북부 지방에도 최근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도시 곳곳이 침수되면서 주민 33만명에 대한 수도물 공

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일 10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로 쌀, 면화 및 돼지고기 등 식품류 생산 감소로 인한 식품 가격 급등으로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목표인 3%를 지키는 데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리치양 상하이 IC 인터텔리전스 관리사는 "자연재해로 올해 쌀 생산량은 5~7%, 면화 생산량은 5~10% 각각 감소할 것"이라며 "농작물 생산량 감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곡물전문사이트인 중화량왕(中華糧王)은 지난달 20일 올해 쌀 생산량이 홍수로 1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쌀과 면화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세계 시장의 절반에 달한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사랑이 활짝 피었습니다

에너지효율을 높인 창호와 우리로 자연을 사랑하고 친환경 바닥재, 벽지, 인조대리석으로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LG하우시스가 있어 건강한 우리 집 사랑도 웃음도 활짝 피었습니다.



LG하우시스는 2009년 4월 LG화학에서 분할한 우리나라 최대 건축장식제기업이자 고기능소재/부품 기업입니다

LG LG하우시스

인도 소프트웨어 검열 착수

화웨이·ZTE등 외국통신장비업체 대상 악성발견뎀 거액의 벌금·물건 공급 금지

스마트폰 열풍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각국을 중심으로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보안 문제가 이동통신업체의 화두로 대두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테러방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통신장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통신시장 규제법안을 제정했다.

인도 정부는 최근 화웨이, ZTE 등 외국 통신장비업체들이 인도 통신망 구축작업 중에 민감한 정부 비밀을 빼돌려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통신장비업체들은 반드시 정부나 현지 통신사업자 또는 별도 지정된 제 3자 품질검수기관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공장시설과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고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안체제를 해야 한다.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

됐다.

통신망에서 스파이웨어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발견될 경우 통신사업자는 계약 금액의 100% 및 계약 건수 당 5억루피(약 19억원)의 벌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통신사업자 하청 장비업체는 물건 공급이 금지된다.

업체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화다. 소스코드에는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명을 요구한 한 해외 통신장비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정부의 조치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며 "통신산업에서 소스코드는 일종의 성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파이웨어 및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벌금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소프트웨어들은 업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망 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인도 통신부에 서한을 보내 "새 규제법안은 에릭슨과 같은 통신장



인도의 통신산업 검열 강화로 관련 업체와 마찰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인도 최대 통신사 바티 에어텔 쇼룸.

비업체들에 전례 없이 불공정한 법"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에릭슨은 인도 최대 통신업체인 바티 에어텔과 지난 3월 13억달러 규모의 통신망 확충 및 3G 서비스 준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 통신장비업체 CEO는 "통신사업자들이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다"면서 "이들은 이미 3G 인가를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새 규제법안이 계속될 경우 관련 산업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휴대용 사용자는 6억4000만 명에 달하고 매일 2000만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인도 정부가 모든 통신장비는 보안 문제가 해

결돼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보안 검열 강화는 통신장비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블랙베리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리서치앤모션(RIM)도 지난달 블랙베리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인도 정부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블랙베리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블랙베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달리 이메일 등 트래픽이 전송될 때 캐나다의 RIM 데이터 서버를 거쳐 자동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블랙베리를 통해 오가는 정보를 도청할 수 없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중국 vs 구글...끝없는 대치

홍콩 우회 검색 뒤에도 해결 실마리 못 찾아

중국의 검열과 해킹에 반발해 구글이 지난 3월 중국 검색 사이트를 폐쇄하고 홍콩으로의 우회 검색을 선택한 이후 양측의 관계는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인 질문과 답변 페이지가 중국에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용자들은 사이트를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알렸지만 구글 대변인은 "구글 홍콩 사이트는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중국당국이 질문과 답변서비스를 차단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했고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도 언급을 피했다.

구글 중국사이트 접속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면서 구글이 중국 사용자 및 광고업자들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의 한 구글 이용자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 서비스에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구글이 중국 주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갱신했지만 구글의 에릭 슈미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정부가 구글이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반발해 중국 검색사이트를 철수한 이후 구글의 중국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에 있는 구글 중국 본부

지난달 28일에는 구글이 중국 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색 및 광고와 모바일 서비스 등이 완전 차단됐다고 밝힌 후 이를 뒤인 30일에 중국 사이트 서비스 차단은 기술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구글 사태로 경쟁사인 바이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바이두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6%포인트 오른 70%를 차지했고 구글은 6%포인트 하락한 24%에 그쳤다. 같은 기간 모바일 검색시장에서도 바이두는 34.3%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구글은 12.3%를 기록해 2위 자리도 현지 모바일 전문검색 업체에

이소우당점에 뺏겼다. 중국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및 마이크로블로깅에 대해서도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인기포털 넷이즈 및 소후 등이 제공하는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는 지난달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 및 표현에 대해 검열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지시를 받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 백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중동국들도 '통신보안 전쟁' 돌입

UAE,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사우디도 동참 조짐

중동 국가들이 본격적인 통신보안 전쟁에 돌입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난 1일(현지시간) 잇따라 안보상의 이유로 리서치앤모션(RIM)의 스마트폰 블랙베리 서비스 차단에 나선 것.

중국이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특정 기기 사용을 막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UAE 통신감독청(TRA)은 이날 블랙베리가 자국법에 저촉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블랙베리 이메일과 메신저, 웹브라우저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블랙베리 서비스 차단에 동참할 분위기다. 파인설타임스(FT)는 이날 국영 기업 사우디텔레콤 관계자 말을 인용, 이날 말부터 사우디 정부가 블랙베리 메시지 서비스를 막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인도 정부도 최근 RIM에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몇주전 RIM에 블랙베리를 통해 전송되는 암호화된 이메일과 메시지를 정보 당국이 해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랙베리에서 발송된 데이터는

캐나다에 있는 RIM 네트워크 센터를 거쳐 암호화된 후 최종 목적지로 전달된다.

RIM만이 블랙베리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UAE 등 정부 당국이 범죄 수사 등을 목적으로 검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UAE TRA는 "블랙베리의 일부 서비스가 법적 책임없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UAE의 법적, 사회적,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UAE TRA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블랙베리 서비스를 차단할 방침"이라면서 "블랙베리 측이 자국 통신법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AE 통신 시장은 국유 이동통신 기업인 에티살라트와 경쟁사 두(Du)가 독점하고 있다.

UAE 당국의 발표에 이어 사우디텔레콤도 "이날 말부터 블랙베리 서비스를 차단할 것"이라면서 "UAE와는 달리 메신저 서비스만을 중단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 사태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도 지난 5월 이슬

람 창시자 무함마드(마호메트)를 모욕한 만화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베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블랙베리 측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며 현재의 서비스 방식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등 일부 국가들의 블랙베리 사용 급부상을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비즈니스와 관광 중심지로 알려진 UAE에서 현재 블랙베리 사용자는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UAE 내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을 오가는 외국인들도 해외 로밍을 통한 블랙베리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의 블랙베리 사용자는 7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블랙베리가 남의 이목을 피해 이성과 연락하는 수단으로 매우 인기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UAE의 블랙베리 서비스 차단 조치에 대해 "지난해 이란의 대통령 선거 이후 벌어진 반정부 시위시태에서와 같이 중동 국가들 사이에 정보통신(IT) 기술이 반정부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탄생 10주년

충치걱정 없이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100% 자작나무 핀란드산 자일리톨 롯데 자일리톨

LOTTE XYLITOL ORIGINAL 자일리톨 50g

100% 자작나무 추출물 함유

UAE 고객불편 최소화 하려 갤럭시S등 제공

아랍에미리트(UAE)가 리서치앤모션(RIM)의 스마트폰 블랙베리 서비스 차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 등 다른 기업들의 휴대폰을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UAE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에티살라트는 3일(현지시간) "블랙베리 고객에 의한 경우 삼성 갤럭시S폰과 웨이브폰, 애플 아이폰, 노키아 E72 등 11개 기종의 휴대폰

중 1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티살라트는 블랙베리폰 이용자가 새 휴대폰을 원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문자메시지 및 데이터 전송 요금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에티살라트의 칼리파 알 샴시 부사장은 "블랙베리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기존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UAE의 다른 이동통신 기업인 두(Du) 텔레콤은 블랙베리 서비스 중단 관련 대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에티살라트와 비슷한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만명에 이르는 UAE 블랙베리 사용자들이 다른 기업의 새 휴대폰을 무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삼성 휴대폰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은행 2분기 순익 절반이상 줄었다

1조3000억...전분기보다 60% 감소

국내은행 2분기 순익이 전분기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6월 건설사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2분기 순익은 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인 3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60.6%)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익 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000억원(34.4%) 감소한 수치이다.

2분기 중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손비용이 5조6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2조6000억원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의 부진에 대비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한 탓이다.

상반기 대손비용도 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7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6.8%) 증가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자이익은 상반기 순이자마진

(NIM)이 개선되면서 이자수익자산이 다소 늘어났으며 비이자이익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처분한 이익과 외환파생 관련이익이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2분기 이자이익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000억원(0.7%) 줄어들었지만 상반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원(23.9%) 증가한 18조7000억원을 나타냈다.

상반기 비이자이익도 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10.9%)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자이익이 7월

금리인상으로 인해 향후 늘어났지만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이익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잠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실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고 부실채권 감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은행의 내실 경영 및 체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현희 기자 maru13@



신한금융, 상생경영에 2200억 쏟아

2013년까지...중소기업·서민생활 지원

신한금융지주가 2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상생경영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내달 1일 창립 9주년을 맞아 2013년까지 2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 상생과 소외된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신한금융은 중소기업 구직자의 희망급여와 실질급여 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희망펀드' 납부를 3년간 지원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1인당 매년 360만원씩 임금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2조1천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자금대출 금리를 감면해 준다. 최초 1년은 연 1.0% 포인트, 이후 만기까지는 연 0.2% 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약 420억원의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2012년 말까지 모든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에게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한희망대출의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4~6등급은 0.5%포인트, 7~10등급은 1.0%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누적포인트 중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포인트 중 일부를 소외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신한카드와 거래하는 협력사 육성 및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5년 동안 매년 100억원씩 출연기로 한 신한미소금융 출연 규모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원으로 늘려 총 출연 규모를 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접 수도 하반기 중 4개를 추가 개점해 모두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종민 기자 kjm@



금감원위원장 '햇살론' 점검. 진동수 금감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최근 출시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 내달까지 대부업체 집중조사

금감감독원이 다음달까지 대형 대부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해 테마검사를 나섰다.

김용환 금감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해 8.9월 중 집중적인 테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대부업체들이 최고이자율 인하 방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금리의 적절한 운용이 진행되는지 집중 검사하겠다"고 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같은 테마 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5%포인트로 인하한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불법 채권추심 또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며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13@

'충당금 폭탄' 우리금융 406억 적자

구조조정·부동산 PF 탓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2분기 4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2010년 1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반기 결산 결과 5324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우리금융이 2분기 적자를 낸 이유는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때문에 선제적 충당금 1조 1660억원을 쌓았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총자산의 증가와 주요재무지표의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상반기말 그룹의 총자산은 33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요재무지표 현황을 보면 동사

는 그룹 기준 ROA 0.4%, ROE 7.7%이며, BIS비율과 기본자가지분비율은 각각 12.2%(E), 8.5%(E)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개선됐다. 은행 기준 BIS비율과 기본자가지분비율은 각각 14.4%(E), 10.7%(E)이다.

부원별지표를 보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연체율은 0.82%로 전분기대비 0.06%p 개선됐으며 중소기업부분의 연체율은 1.16%로 전분기대비 0.29%p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보수적 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적극적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라 고정이하어신비율은 3.0%로 전분기대비 1.0%p 증가했다. 수익성측면에서도 이자이익은 3조 2187억원으로 전년동기대

비 15.5% 증가해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반기 누적 NIM은 전년동기대비로는 0.49%p 상승한 2.38%를 기록했다.

2분기중 NIM은 CD금리 하락 등의 영향에 따라 2.30%로 전분기대비 0.12%p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중 이자이익은 1조613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0.6% 증가했다. 수수료 수익은 2분기 기준 434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6% 증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010년 하반기에는 충당금 적립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이익 실현이 기대되고 있어 실적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종민 기자 kjm@

외환銀 첫 분기 배당...론스타 329억 챙겨

투자금 2조 대부분 회수

외환은행이 올해 2분기에 21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려 주주들에게 총 645억원의 분기 배당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외환은행은 2분기 210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분기보다 33.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비용이 전분기 1천839억원에서 2분기 2천386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일회성 이익이 줄면서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순이자이익은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19.4% 늘어난 5천1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MIN)은 1분기 2.83%에서 2분기 2.60%로 하락했다.

수수료 및 비이자이익은 2천1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가 증가했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고정이하어신(NPL) 비율이 1.12%에서 1.31%로 증가했다. 2분기말 은행 총자산은 102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한편 외환은행은 주당 100원의 분기 배당안을 결의했다. 이번 분

기 배당은 2분기 당기순이익(2109억원)의 약 30% 정도 규모로, 총 배당액은 약 645억원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연간 순이익의 40~50%를 배당하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대외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은 연간 배당보다는 각 분기에 배당을 나누어 함으로써 배당지급 빈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한 론스타는 이번 분기 배당으로 약 329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고종민 기자 kjm@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동부금융네트워크

"당신에게 준비된 미래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 동부화재
- 동부생명
- 동부증권
- 동부자산운용
- 동부캐피탈
- 동부저축은행
- 동부금융네트워크

차기 손보협회장 선정작업 착수

후보추천위 구성...문재우·고영선씨 등 거론

손해보험협회의 차기회장 선출이 본격화되면서 후보에 대한 마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5년전 사태를 떠올리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손보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이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이상용 회장의 후임을 선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후추위는 손보사 대표 5명, 학계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쯤 차기 회장에 대한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손보협회장 후보에는 문재우 전 금융감독원 감사와 고

영선 현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상용 현 회장 역시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선 5년전 손보협회 사장 퇴출 사태를 떠올리며 이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 손보업계를 이끌고 조정기능을 수행할 있는 보험전문인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해리 기자 healee81@

“원화 변동성 높아 더 쌓아야” “불균형 해소론 타킷 우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당국 및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화의 변동성이 큰 만큼 추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국제 불균형 해소라는 국제적인 기류에 반하는 만큼 추가적인 적립은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엔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선물환 규제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갑작스런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의 입장은 다소 애매하다. 오는 11월 G20회의 개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장국인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6위이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국제 불균형 완화를 G20회의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유입되는 해외 투자금 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2010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7월말 외환보유액은 2859억 6000만 달러로 지난 6월 말보다

117억40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GDP의 30%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2조4543억달러나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4612억달러, 대만과 인도는 3624억달러, 2757억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액 상위 10위 안에는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이며 나머지는 선진국 중에선 스위스가 유일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결코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4월말 외환보유액은 2788억 달러를 돌파하자 외환보유액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도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에 처했던 신흥국이 많았으며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쌓아야 충분한지는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과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지나치게 쌓지 말자며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주장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은행 국제연구팀 박동준·조석방 과장과 김동우 조석범은 '국제 불균형 조정에 관한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론의 일차적 타킷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불균형이란 각국의 경상수지, 통화기치, 투자자금 유출입, 민간 소비와 저축, 외환보유액 등

월 만에 695억달러가 각각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마비되는 등 충격이 컸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220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출은 순식간에 이뤄진 셈이다. 실제로 국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 변동성은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 32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올 2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원·

7월말 현재 2895억 달러...역대 최고 재경부는 G20회의 앞두고 입장 모호

에서 불균형 상태가 고착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선진국의 지나친 부채와 소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신흥국의 높은 저축 성장과 낮은 통화기치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가 국제 금융위기를 키웠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논의가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역시 강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214억달러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4개

달터 환율 일중 변동폭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각각 12.8원 및 10.9원으로 전분기(7.1원 및 5.6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환보유액 적정선에 대해선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선 G20회의를 앞두고 무리하게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보다는 미일중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이나 12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공동기금(CMI) 적극 활용 등을 활용해 '가상'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국	24,543 (72)
2	일본	10,502 (89)
3	러시아	4,612 (48)
4	대만	3,624 (23)
5	인도	2,757 (37)
6	한국	2,742 (40)
7	홍콩	2,568 (6)
8	스위스	2,555 (-64)
9	브라질	2,531 (33)
10	싱가포르	2,000 (16)

국내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면서 과도한 외환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과 관련된 잠재된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며 "대내외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20 의장국

이라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다소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이코노미스트는 "적정 외환보유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답이 없고,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서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과다하다는 논란은 의

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 역시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기자 chaosbi@

유가증권 86% · 예치금 13% · 金 0.03%

■ 외환보유고 자산별 현황과 관리 형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미국 달러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외환보유액을 보유자산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에 2450억 3000만달러로 전체의 85.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예치금 363억9000억 달러(12.7%), SDR 35억달러(1.2%), IMF포지션 9억6000만달러(0.3%), 금 8000만(0.03%) 달러로 돼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의 보유자산별 분류는 세부적인 내용을 매월 보고하지 않고 1년에 1차례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700억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을 보유자산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및 예치금 등 외환은 2652억달러, SDR은 37억달러, IMF 포지션은 9

억8200만달러, 금은 7900만달러였다. 2009년말 기준 자산별 구성을 보면 전체 외환자산중 수익성자산이 전년말보다 7.9%포인트 상승한 8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위탁자산 및 유동성자산의 비중은 각각 4.0%포인트 및 3.9%포인트 줄어든 14.1%, 1.9%에 머물렀다.

통화별로는 국제환율 변동에 따른 보유 외환자산의 가치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미 달러화 이외에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에 분산투자하고 있는데 2009년말 현재 외환자산 중 미 달러화 비중은 63.1%로 전년말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IMF가 발표한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미 달러화 비중 61.6%(2009.9월말 기준)를 소폭 상

회하는 수준이다. 상품별로는 정부채 비중이 38.1%로 전년말에 비해 6.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8년중 국내 외환시장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매각 하였던 정부채를 재매입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기관채 및 자산유동화채 비중은 각각 22.3% 및 17.4%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채 보유비중은 15.1%로 정부채 및 주요국 정부가 보증한 금융채 위주로 교체 매입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주식 보유비중은 소폭 줄었다.

한편 이런 외환보유액들은 대부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국제결제전문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실물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전자 결제 형태로 이뤄진다.

외환자산	구분	2007	2008(A)	2009(B)	증감(B-A)
1. 자산별	유동성 자산	3.9	5.8	1.9	-3.9
	수익성 자산	84.5	76.1	84.0	7.9
	위탁 자산	11.6	18.1	14.1	-4.0
	기타 통화	64.6	64.5	63.1	-1.4
2. 통화별	미 달러화	35.4	35.5	36.9	1.4
	예치금	7.4	8.4	4.0	-4.4
	유가증권	35.5	31.8	38.1	6.3
	정부기관채	28.8	22.4	22.3	-0.1
3. 상품별	회사채	15.4	16.9	15.1	-1.8
	자산유동화채	11.6	17.0	17.4	0.4
	주식	1.3	3.5	3.1	-0.4
	합 계	100.0	100.0	100.0	-

* 주 : KIC 위탁자산중 주식투자분 자료 : 한국은행

금의 경우엔 영란은행 또는 한은 지방 모지점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치 않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갖고 있는 금의 보관 위치, 운용사항은 1급비밀로 알려져 있다.

김현희 기자 maru13@

수출호조 · 원화강세로 보유액 더 늘어날듯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꾸준히 유입되는 해외 투자금 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2010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7월말 외환보유액은 2859억6000만달러로 지난 6월말 보다 117억4000만달러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7월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이유는 운용수익이 증가하고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강세로 인한 이득 통화표시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외환보유액 증가에는 대규모 무역흑자가 달려가 대거 유

입됐고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7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4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에서만 2조9000억원을 순매수했다. BJK투자증권 선성인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달러가 풍부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 설명이다.

신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월말 월초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만큼, 하락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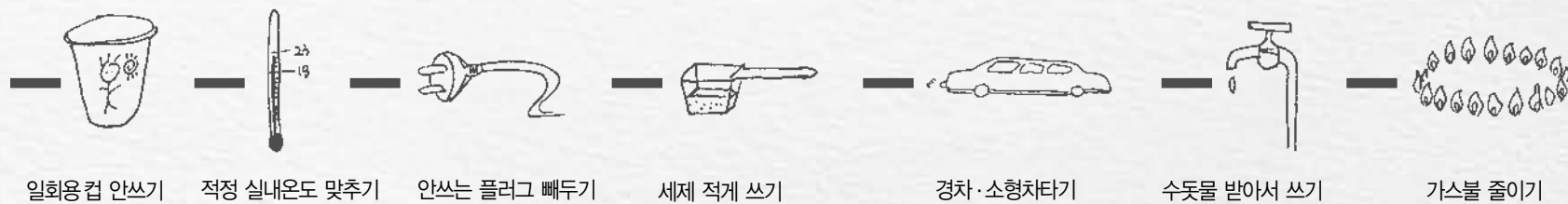
동양증권증권 성재만 연구원은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120원선에 위치한 상태라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환율 정책 변화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성재만 연구원은 "원화 강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 내려갔을 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모든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고환율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3일 원·달러 환율은 1180 원선으로 급락했다.

고종민 기자 kjm@

KOGAS



일회용컵 안쓰기 적정 실내온도 맞추기 안쓰는 플러그 빼두기 세제 적게 쓰기 경차·소형차타기 수돗물 받아서 쓰기 가스불 줄이기

‘愛’ 너지! 사랑한다면 다이어트하세요

하나씩, 한 방울씩, 1도씩...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경제에 큰 희망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모두를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관들 氣싸움에 투자자들만 골탕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견제하려 보유종목 집중매도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기(氣) 싸움에 투자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문형 랩어 카운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문사 덩치가 커지자,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자문사 보유 종목을 집중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IT업종 위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순매를 보더라도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자문형 랩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문사 펀드매니저는 "A사 블록딜을 받은 자산운용사가 매입가 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며 "투자자문사의 급성장 위협을 느낀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블랙홀로 불릴 정도로 증시 자금을 빨아들였다. 지난해 21개에 그쳤던 랩 상품은 올해 들어서만 총 73개가 새로 출시됐다. 국내 간접투자 시장에 최초로 자문형 랩이 등장한 지난해 1월 이후 불과 19개월

만에 2조원 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길로 밝힌 통계에는 2조원대지만 실제 자문형 랩 운용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일부 자질 없는 애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리포트 작성을 비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자질 없는 애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애널리스트가 종목추천을 할 때 그 종목에 대해 자기 연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과연 지금처럼 무책

이승환 기자 lsh@



미래에셋템스 WT선물 ETF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오전 서울사옥 종합정보관에서 미래에셋템스자산운용(주)에서 운용하는 미래에셋템스 WT선물 ETF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범석 S&P Index Korea 이사, 이창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성기 미래에셋템스자산운용 사장, 임훈수 한국투자증권 그룹장. [연합뉴스]

2009 Vision Awards 대진증권 금상 수상

대진증권은 미국의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연차보고서 평가 시상식 '2009 Vision Awards'에서 금융자본시장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진증권의 2009 애뉴얼리포트(Global Trust - the way we think)는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바탕으로 금융주주의를 통한 최고의 금융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진증권의 모습을 세련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승환 기자 lsh@

“올 하반기 그룹지주사 투자 적기”

LG·CJ 등 외국인 순매수로 급등·IT·자동차 대안주 부상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IT와 자동차 등 주도주들의 모멘텀 약화로 대안주로 지주회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위축됐던 IPO(기업공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상장 계열사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은 CJ다. CJ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32%가 넘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CJ주가는 지난 5일 현재 7만6200원을 기록하는 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이상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수량이 34만주를 상회하고 있다.

LG는 기관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폭을 올리고 있다. LG는 기관 순매수로 등에 업고 8만1원대를 다시 회복한 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8만3800원을 기록 중이다. 최근 10일간 외국인의 순매수량 250만주를 넘어선 가운데 금액만 35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두산도 최근 한달간 11%대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 5일 11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들어 등락을 계속하며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KTB투자증권은 올 하반기를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적기로 제시했다.

오진원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격 사이클 진입에 따른 지주회사의 활인을 촉수를 전망했다.

IPO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비상장 계열사 가치의 재조명, 자산가격 사이클의 중장기적 회복 기초적인 이유로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

종목	현재(5일 현재)	최근 1달 상승률	목표주가
LG	823800원	26.4%	1022000원
CJ	76200원	32.7%	926500원
두산	117500원	11.4%	1429000원

목표주가=금융투자연구원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LG CNS, 실트론, 서브윈 등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 혹은 가치 재평가 이슈로 주당 순자산가치의 재조명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라며 "추세적인 브랜드 로열티 및 임대료수익의 증가로 회사의 이익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CJ는 올 하반기 원화강세 효과와 삼성생명의 긍정적 전망,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재평가 등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송인찬 솔로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아가면서 지주회사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산의 경우 방백의 실적 개선세와 모토를사업부문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영섭 기자 hyon0214@

증권사 7월 장사 '굿'

거래대금 증가에 CMA·랩 자금유입

증시호조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상품운용부문의 안정적 수익 확보에 힘입어 증권사들의 7월 실적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따르면 코스피지수 연고점 경신으로 인해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사 실적에도 초록 불이 켜졌다. 실제로 지난 6월 6조 7000억원에 머물던 일평균거래대금은 7월들어 6% 가까이 증가하며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박은준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 증권사들의 7월 실적이 전월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거래대금회전율이 최근 반등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큰 폭의 지수 상승 없이도 거래대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식형 펀드 판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CMA와 랩어카운트로 꾸준한 자금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자금유입에 따른 실질적 영업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식형펀드에서 7월 한 달 동안 3조6000억원의 자금이 이탈했지만 CMA 잔고는 지난달 말 42조5823억원의 기록, 지난 6월 말 41조3468억원 대비 1조5455억원(3.7%) 늘어났다. 특히 지난 22일

에는 43조2990억원까지 치솟으며 종전 최고치(42조4043억원)도 경신했다.

랩어카운트 잔고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올 1월 19조5000억원에 머물던 랩어카운트잔고는 6월말 현재 44.6% 급증한 28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7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임승주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형 펀드 판매에도 불구하고 환매 자금의 일부는 주식 시장으로 재유입 되고 있어 시장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펀드환매의 지수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매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지 않고 랩 상품들로 재유입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홍보실 19층이죠?...목표 주가 19만원으로 하죠” 스타 애널리스트 ‘황당 발언’ 투자자들 화났다

“홍보실이 19층이죠?...그럼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하죠” 스타애널리스트가 기업IR 담당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애널리스트는 기업 IR담당자에게 홍보실이 몇 층이냐고 묻고 나서 기업의 목표주가를 홍보실 층수에 맞춰 제시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일부 자질 없는 애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리포트 작성을 비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자질 없는 애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애널리스트가 종목추천을 할 때 그 종목에 대해 자기 연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과연 지금처럼 무책

임한 종목추천을 할 수 있을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애널리스트 추천종목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난 주식도 있어 자질 없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한 듯 애널리스트의 경력과 매수·매도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체계'를 협회 홈페이지에 구축해 다음달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체제로 현재 만연돼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기업과의 이해관

계와 눈치 보기 리포트가 사라질지에 대해 의문은 표하고 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고액연봉을 받는 선망의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들 애널리스트들이 이해관계에 따른 무책임한 종목 추천과 형식적인 리포트 작성으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돈을 쫓은 잦은 이직과 외국과 달리 매도 의견이 거의 전무한 점은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애널리스트의 연평균 이직률은 41.2%로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연평균 이직률 21.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내 연평균 이직률 11.1%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잦은 이직과 고액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가 전무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매도 의견을 낼 경우 해당기업과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원성과 폭력에 가까운 함의로 애널리스트가 곤혹을 겪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이 고액연봉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아직까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신뢰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리포트를 작성해 이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고액자산가, 현금 줄이고 주식 늘렸다

삼성생명 분석, 1억 이상 직접투자 고객 30% 급증

증권사에 1억원 이상을 예탁한 고액자산가들이 지난 1년간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주식 직접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1억원 이상 예탁한 고액자산가 7만1162명의 자산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7월부터 올 7월까

지 1년간 고액자산가들의 MMF와 RP등 현금성 자산은 각각 26.1%와 15.9% 감소한 반면 주식 직접투자 자산은 37.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일임형 랩 자산은 무려 345.6%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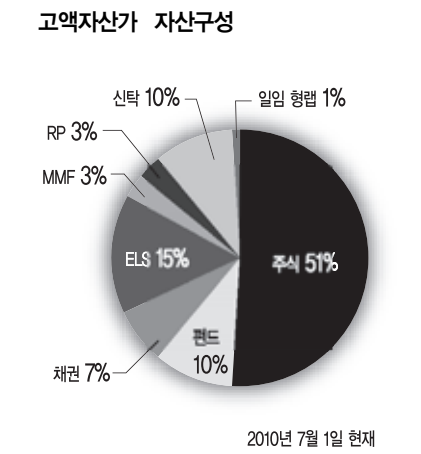
이처럼 주식투자 자산이 늘어나

면서 1억원 이상 예탁고객 중 주식투자 고객은 1년간 30%나 급증하며 3만9123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두 개 이상의 자산을 거래하고 특정 상품의 비중이 75%를 초과하지 않는 '복합 투자고객'은 1만4926명에서 1만8764명으로 25.7%나 증가했다.

반면 ELS나 펀드 한가지에만 75%이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몰빵 투자자'는 각각 32.2%, 7.2%가 감소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주간 IPO/장외주식시장

8월 첫째주 코스피지수는 주 초반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1790선까지 올랐지만 사흘 연속 조정을 받아 1783.83으로 물러났다. 한 주간 장의 주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다. 경쟁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통신기술(+8.29%)은 한 주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5만15000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삼성SDS(13만13000원)와 엘지씨엔에스(3만23500원)도 각각 2.70%, 1.08% 오름세를 보였다.

리비아 등 외국과의 외교 마찰로 해외 주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설주들은 보험세를 이뤘

다. SK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4만1000원, 6만135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한 주간 2.48% 상승한 8만2500원을 기록했다. 금융주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주 초반 1만2000원대로 밀려났다가 3거래일 상승세를 보이며 1만36000원으로 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IBK투자증권(6100원)과 하이투자증권(18600원)도 각각 3.39%, 9.41% 상승했다.

반면, 리딩투자증권(935원)과 솔로몬투자증권(4450원)은 각각 1.06%, 2.20% 하락했다.

KT계열은 등락이 엇갈렸다.

케이티스는 한 주간 7.69% 상승하며 5600원을 기록했고, KT와 위털(1만1050원)은 1.34% 하락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주 초반 2만4000원대 초반에서 6.82% 상승하며 2만5850원을 기록했다. 범현대계열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1만25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0.43%, 3.70% 상승했고,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카드의는 각각 0.87%, 0.93% 하락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해 5대 1 액면분할을 실시 하는 두산엔진은 5만4250원으로 0.93% 상승했다. 기

업공개(IPO)종목들은 하락 및 보합세를 보였다.

내주 12일(목) 상장 예정인 도화종합기술공사는 5.08% 하락한 2만2400원을 기록했다. 금주 증권신고서가 나온 씨젠은 4만7500원으로 한 주간 장외 거래를 마쳤다.

승인주에서는 현대홈쇼핑이 내주 증권신고서를 제출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0.27% 상승하며 9만4000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다원시스(+10.67%)와 시그네티스(-3.03%), 힐라코리아(-0.28%)는 각각 1만2450원, 3200원, 3만7750원을 기록했다.

종 목		2010.8.2			2010.8.6			주간등락폭	등락율	계좌이체
		팔자	사자	기준가	팔자	사자	기준가			
장외주요종목	미래에셋생명	11200	11000	11100	11000	10800	10900	-200	-1.80%	가능
	삼성광전자	25500	24000	24750	26000	24000	25000	250	1.01%	가능
	삼성SDSC	130000	129000	129500	134000	132000	133000	3500	2.70%	가능
	서울통신기술C	52000	50500	51250	57000	54000	55500	4250	8.29%	가능
	스프코토	12500	12000	12250	12500	12000	12250	0	0.00%	가능
	엘지씨엔에스C	33000	31000	32000	32700	32000	32350	350	1.09%	가능
	코리아로터리서비스	13400	12500	12950	13400	12500	12950	0	0.00%	가능
	포스코건설	82000	79000	80500	85000	80000	82500	2000	2.48%	가능
	한국증권금융	13300	11500	12400	14000	13200	13600	1200	9.68%	가능
	현대모비스	7500	6000	6750	7500	6500	7000	250	3.70%	가능
	현대삼호중공업	60000	55000	57500	60000	54000	57000	-500	-0.87%	가능
	현대아산	10000	8500	9250	10000	8500	9250	0	0.00%	가능
	현대위아	60000	55500	57750	59500	56500	58000	250	0.43%	가능
	현대카드	16800	15500	16150	16500	15500	16000	-150	-0.93%	가능
	현대캐피탈	38800	37000	37900	38800	37000	37900	0	0.00%	가능
IPO종목	IBK투자증권	6100	5700	5900	6500	5700	6100	200	3.39%	가능
	kdb생명	2350	2200	2275	2350	2200	2275	0	0.00%	가능
	KT파워텔	11300	11100	11200	11400	10700	11050	-150	-1.34%	가능
	SK건설	41000	39000	40000	43000	39000	41000	1000	2.50%	가능
	SK텔레시스C	6600	5600	6100	6900	6000	6450	350	5.74%	가능
	다원시스C	12000	10500	11250	14000	10900	12450	1200	10.67%	승인
	대구방송	11000	9000	10000	11000	9000	10000	0	0.00%	심사청구
	도화종합기술C	24000	23200	23600	22500	22300	22400	-1200	-5.08%	공모완료
	삼본정밀전자C	9500	8300	8900	9500	7500	8500	-400	-4.49%	심사청구
	시그네티스C	3500	3100	3300	3500	2900	3200	-100	-3.03%	승인
	신용기계C	7500	6000	6750	7500	6000	6750	0	0.00%	심사청구
	씨젠C	43000	8500	40750	43000	38500	40750	0	0.00%	공모예정
	아이씨코리아C	2900	2500	2700	2900	2500	2700	0	0.00%	심사청구
	케이티스C	5300	5100	5200	5700	5500	5600	400	7.69%	심사청구
	케이티씨에스C	4200	4100	4150	4200	4100	4150	0	0.00%	승인
코켄C	6500	4500	5500	6500	4500	5500	0	0.00%	심사청구	
한국전자인증C	2300	1800	2050	2300	1800	2050	0	0.00%	심사청구	
현대홈쇼핑	96000	92000	94000	95000	93500	94250	250	0.27%	승인	
힐라코리아	39000	36700	37850	38500	37000	37750	-100	-0.26%	승인	

6 연령대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 첫발과 동시에 준비 10년 단위 투자 전략을

글쓰는 순서

- 1 자산관리 왜 필요한가
- 2 현명한 자산관리 열풍부터
- 3 어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 4 자산관리 성공 열쇠는 무엇
- 5 연령대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6 강남 부자 자산관리 어떻게 할까
- 7 행복한 은퇴설계 후 어떤 그림 그릴까
- 8 10년을 물어 돌 주식은 어떤 것
- 9 자산관리도 이런 브랜드를 살펴라
- 10 내게 맞는 금융상품 어떤 것을 고를까

3년차 직장인 최씨(30·부산)는 한 달에 90만원을 보합, 펀드, 적금에 투자한다.

최씨의 한 달 월급은 300여만원. 최씨는 현재 장기주택마련 7년 만기 적금과 펀드 한 개,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1월에 받은 IR(인센티브 보너스) 1000만원은 전액 주식으로 돌렸다. 우량주와 테마주를 8대 20의 비율로 각각 분산투자했다.

최씨의 직장 동료 대부분이 주택청약과

연금보험, 주식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두 팔을 가진 공무원 이씨(42·서울)는 월급 550만원의 절반을 생활비로 쓴다. 남은 돈 중 200여만원을 국공채 펀드와 자녀 학비 대책 적금, 각종 의료보험비로 쓴다. 살고 있는 집은 전세다.

주택마련적금 만기일은 3년이 더 남았다. 이씨는 "적금이 3억짜리라 만기가 돼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준비가 늦은 게 아닌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10대 때부터 자산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금융 투자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준비부터 40대 이후 가족 부양 계획까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준비해야 원하는 삶에 이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0년, 20년 단위의 투자 전략이 필요해진 셈이다. 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이 말하는 연령별 자산관리 전략을

알아봤다.

20대는 주택자금 마련의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한다. 젊고, 가족 부양의 부담이 덜 한 나이에 적당한 위험 감수를 감안하고 파생상품과 같은 고수익 투자 상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안정적 금융상품에도 분산투자하는 것도 좋다.

30대로 접어들면 결혼 및 육아 지출과 본격적 주택 마련 비용이 늘어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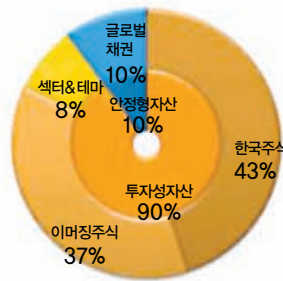
따라서 20대보다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가족별 연금보험이나 주식펀딩식 혼합펀드형과 같은 고수익 상품을 찾는 것이 좋다.

40대는 자녀의 대학입학 등 학자금 부담과 중·고교 교육비 지출이 크다. 시중 은행권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ELS나 시중중립형 상품, 학자금 마련 장기 투자 적금 등을 고려하는 한편 개인의 다양한 의료보험 가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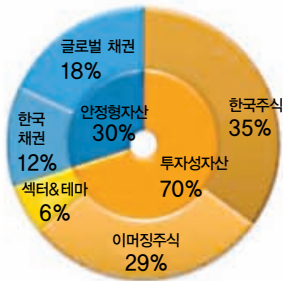
50~60대는 안전형 자산을 75%이상으로 늘리는 등 그동안의 결실을 관리하는 방식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의 채권수익상품이나 예금이 좋다. 만기 10년 이상의 즉시연금보험가입으로 비과세 혜택과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손실을 회복할만한 시간과 여건이 갖춰지지 합쳐 무리한 투자와 자금운용은 주의하는 것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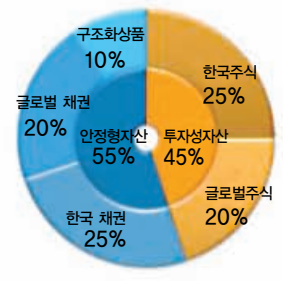
김하늬 기자 hone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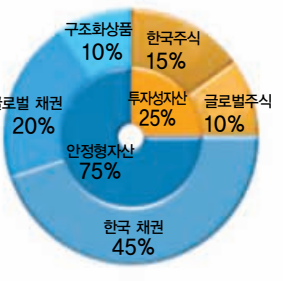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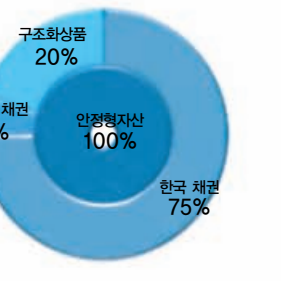
30대



40대



50대



60대

30대 고수익 RP, 40대는 채권·ELS 분산 투자

■30~40대 재테크 전략은

재무설계관 사람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다. 전문가들을 통해 실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와 40대 남성의 현재 자산을 통한 재테크 방식을 알아보자.



한희준 리베스스PB점 임주혁 차장



동양증권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노수민PB

Q. 38세 기준 남성으로 월 소득은 세후 400만원이다. 자산 현황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금 1억5000만원과 예금 200만원, 장기주택마련 적금 1700만원(월 30만원), 국내주식형펀드(월 20만원)와 차이나주식형펀드(월 10만원)를 합쳐 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가족 통합보험 월 17만원 개인연금저축 월 25만원 납부하고 있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3000만원,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이 있다.

A. 적금 5년이 끝난 상태이면 소득공제 혜택은 충족했으므로 모두 찾은 다음 마이너스통장을 없애는 것이 좋다.

펀드는 현재 원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가을까지는 보유하되 추가납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수 상승시마다 1/3씩 환매해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을 새롭게 시작하고 총 부채를 2000만원 아래로 줄이고 난 다음부터 펀드 및 고수익RP 상품에 투자해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

Q. 현재 45세 기준 남성으로 월 소득은 450만원이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한명 있다. 보유 자산은 시가 3억원의 아파트(대출 1억2000만원),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 1200만원, 은행정기예금 2000만원, 펀드 600만원, CMA 45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자녀(아들 14세)의 대학진학 및 여학연수를 고려하고 있으나 특별한 재무계획은 없다.

A. 현재 소득대비 과다한 대출 이자 및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서 정기예금 2000만원을 대출 상환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녀 대학입학기간까지 6년, 여학연수 7년의 준비기간 동안 대학등록금(연간 1000만원×4회), 여학연수(2000만원×1년) 비용을 고려해 누적 필요자금은 약 8500만원이 된다.

먼저 펀드 40만원과 적금 20만원을 6년간 적립식으로 불입하고 다음으로 상호저축은행 적금 만기 시 채권과 ELS로 분산투자 하는 것을 권유한다.

이재현 기자 nls0118@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조언

“위기는 기회...자동차·IT 주목

“지난해 두바이 사태와 올해 남유럽 재정위기 및 중국 저준율 인상, 남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이 전보다 기회였다. 당시 약재로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마다 다 팔고 떠나면 손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면 수익을 냈을 것이다.”

2012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지수 2400선을 예측하고 있는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사진)이 투자자들에게 건네는 제안이다.

오 센터장은 “은행권의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 잡기도 못한 만큼 투자자산을 통한 자산관리는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현 시점에서 주식과 펀드 등의 투자자산에 투자할 때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 센터장이 권하는 균형잡힌 자산배분 전략은 부동산에 50, 금융자산 50이 기본이다. 향후 정책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

람 금융자산 50 내에서도 이자자산을 40으로 줄이고 투자 자산에 60으로 늘릴 것을 권했다.

그는 “향후 증시 상승을 고려하면 주식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바뀌어 할 것”이라며 “안정성향의 투자자산인 적립식으로 중장기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는 사람은 가치치, 그보다 더 고 수익을 원하면 종목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목투자라고 하면 향후 소비 시장이 선진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올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동차와 IT 및 이들 전방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소재와 에너지, 플랜트 관련 기계의 수혜가 예상되고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자력과 태양광까지 충분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남호 기자 spdran@



6 강남 부자 자산관리 이렇게 한다

여전히 부동산에 관심...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채권·ELS

부자가 되기 위해선 그들의 자산관리 방식에 대해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1% 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자산관리를 할까.

HMC투자증권과 동부증권, 동양증권 증권 강남지역 PB들을 만나 강남지역 부자들의 유형과 최근 투자방법에 대해 알아 봤다. 먼저 강남지역 부자들의 자산은 평균 20억원 정도 가장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비과세 상품과 1년 6개월 미만의 지방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동양증권증권 골드센터강남점 지수영 PB는 “강남의 부자들은 아직 자산

의 상당부분은 부동산(건물임대, 토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좋지 못해 신규투자는 주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가장 선호하는 투자상품으로는 채권과 주기연계증권(ELS)을 꼽았다.

그중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ELS가 꾸준하게 고객 자산가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

고객의 자산을 가진 고객들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수익성을 선택했다. 또한 고객의 사후관리와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지수영 PB는 “PB 개개인의 실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에 매수한 금융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AS해주는 사후관리와 고객의 관심사 등 모든 사항에 꾸준히

평균자산	20억원
직업	의사, 변호사, 자수성가 사업가 등
선호 투자처	부동산, 비과세 상품, 지방채
선호 투자상품	채권, 주기연계증권(ELS)
금융트렌드	자문사 또는 일임형 랩(Wrap)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남 부자들의 금융 트렌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에서 자문사 또는 일임형 랩(Wrap)으로 관심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HMC투자증권 황윤숙 도곡지점 차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락시에도 수익을 방어해 가능한 것이라 믿는 자문사립 또는 일임형 랩어카운

트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남 부자들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하게될 경우 가장 힘든 점으로는 상품 트렌드 정보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황윤숙 차장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웬만한 자산관리사의 수준에 육박해 자문을 위해서는 사전 공부 가 필수”라고 말했다.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용균차장은 “강남지역 고객들은 타 금융기관 PB들과 최소한 한두명 이상은 친분관계가 있어 상품에 대해 본인들이 전부 안다고 판단한다”며 “또한 극소수의 VIP의 경우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미련과 금융상품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근검절약 습관화·한발 빠른 정보력 가져야

‘부자학 전도사’ 한동철 교수의 부자되는 법

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자학 전도사 한동철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자의 기준을 현금 10억원을 포함한 5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부자의 특성을 근검절약이 습관화됐다는 점, 정보력이 빨라 남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약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절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최근 류시문 한맥도시개발 회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했다.

“얼마전 류시문 한맥도시개발 회장을 만났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회에 상을 받으려 했는데 몇억원씩 기부하시는 분이 양복이 너무 허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맘먹고 구입한 것이 27만원짜리 양복이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자라 근검절약이 몸에 밴 그는 60세가 넘은 지금도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것.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남은 것은 기부하는 것이 삶의 철학인 셈이다.

그는 또 “어느 부자는 80세가 넘은 신변에 자기 소유로 5개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롯데백화점 전단지들 잘게 잘라 그 뒤쪽

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곳에서 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부자들의 특성이란 분석이다.

한 교수는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정보가 빠르고 행동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얼마전 강남주부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며 “이처럼 그들은 정보력이 빨라 남보다 먼저 알고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오하나 기자 hnoh@



강남부자 재테크 노하우 10가지

글로벌 다들답 우려, 유럽발 7월 위기설, 대기업-중소기업 실적 양극화 등 최근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와 보도에 투자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겨우 회복한 통장 잔고도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지 불안할 따름이다. 그러나 혼돈의 시대에도 기회는 있다. 강남 부자들의 금융 습관을 통해 재테크 성공의 노하우를 알아보자.

- 1 실현가능한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만을 쫓아 자금을 몰다보면 특정 상품의 고수익성에 포드폴리오 수익률이 과도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 2 단기·중기·장기 재무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정해야 한다.
- 3 더 오래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버려라. 목표수익률에 도달했다면 과감하게 차익실현에 나서야 한다.
- 4 선 저축후 소비하라.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저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 5 작은 리스크에 연연해 부하노동 하지 말라. 단기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상품 가입과 환매를 빈번하게 하다 보면 수수료 및 기회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 6 금융·부동산·세무 등 분야별 상담 전문가를 뒀다.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등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균형을 맞춰줄 실전 경험자 풍부한 재무코디네이터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7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 채널을 구축하라. 재테크는 정보 싸움이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 8 경제 및 금융상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라. 최근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상품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게 힘이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9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 자신의 자산과 부채, 현금 흐름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자금의 변동추이를 확인할 경우 리스크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 효율적인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다.
- 10 절세 방법을 터득하라. 가족간의 사전 증여 등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종합과세에 제외되는 절세상품에 적절히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태양광 사업 뒤늦게 뛰어든 한화 '햇살' 볼까

중국 솔라파워홀딩스 지분 49.9% 인수 “투자확대·연구개발·기술력 확보” 시급

한화그룹이 세계 4위 태양광 모듈업체인 중국 솔라파워홀딩스(Solarfun Power Holdings Co., Ltd) 인수를 밝히면서 태양광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산업 후발업체인 한화가 태양광사업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태양전지 규모 확대, 기술력 확보 등 당면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태양광업체 솔라파워홀딩스의 지분 49.9%를 4300억원 규모에 인수했다.

한화케미칼 홍기준 대표(한화솔라사업담당 겸임)는 지난 3일 오후 상해 하얏트호텔에서 솔라파워홀딩스의 CEO 피터 시에(Mr.

Peter Xie)와 본계약 체결식을 갖고 이번 인수를 통해 솔라파워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솔라파워홀딩스(사진)는 지난 2004년 설립돼 2006년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주력 사업 영역은 태양광셀 및 모듈 제조업이며 임 곳에서부터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기까지 태양광사업의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M&A를 통해 태양광 사업 진출에 대한 선도적인 발판을 마련했고 김승연 그룹 회장이 강조해왔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태양광산업 후발업체인 한화가 시장에서 살아남

기 위해서는 규모확대, 기술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장에선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사업 주력부문의 태양전지의 규모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 이번 M&A로 규모면에서 한숨 돌렸지만 중국 이외의 시장 확보를 위해선 울산의 태양전지공장 생산라인 증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화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30MW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370MW)의 12분의 1, 글로벌 10위 업체인 대만 진텍(650MW)의 2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STX그룹 계열사인 STX솔라의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위



해 최근 태양전지 생산규모를 60MW에서 180MW로 확대키로 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 최근 몇 년새 태양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나 규모에서 큰 격차가 벌어질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울산공장의 태양전지 생산규모를 현재

안경주 기자 ahnkj@



박삼구 명예회장



박병엽 팬택 부회장

‘구원투수’로 나선 兩朴 금호아시아나 ‘메시아’ 되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한국이 월드컵 사상 최초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박주영(AS모나코) 등 ‘양박(兩朴)’이 있었다.

월드컵이 폐막된 지 한달여가 흐른 지금, 재계에서 ‘양박(兩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박삼구(사진 왼쪽·65)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과 박병엽(오른쪽·48)팬택 부회장.

지난달 30일 박찬범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안팎에서는 박 명예회장의 경영일선 복귀가 시시각각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추석 전, 늦으면 연말에 박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었던 대우건설 매각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룹의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단독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명예회장의 경영복귀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박 명예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단과 맺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금호타이어·금호산업 조기 정상화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창출 및 극

대화 방안 모색 ▲금호아시아나 기업문화 재정비 등을 약속해 이같은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난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와의 심각한 갈등 끝에 퇴진한 박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해야 그룹의 경영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데에는 그룹 안팎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또 한 명의 릴리프(구원투수)로 팬택의 박병엽 부회장을 선택했다.

웨이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중인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박병엽 팬택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워크아웃 중인 팬택의 성공적인 워크아웃 청산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박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해 박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

재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박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수차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팬택 회생에만 몰입하던 박 부회장이지만, 금호타이어와 채권단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팬택이 지난 2007년 초 워크아웃에 돌입하자 박 부회장은 ‘백의중군’의 자제로 기업회생에 전력을 다한 결과 1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베가’는 국내시장에서 ‘갤럭시S’에 이어서 2위를 기록 중이다.

박철근 기자 ckpark@

포스코 강판값 인상 車업계 원가부담 커져

하반기부터 국내 완성차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강판 공급 가격에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고 협상 기간도 분기 단위로 짧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월말까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르노삼성, 쌍용차 등 자동차 제조사들과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협상은 포스코의 지난 5월과 7월에 인상을 가격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공급하는 강판 가격은 22만~23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포스코는 지난 5월 t당 18만원, 7월 5만~6만원씩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격 협상도 연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국내 자동차업체는 그동안 연간 단위로 자동차용 강판을 계약했으나 철광석 및 연료단 가격 협상이 분기 계약으로 바뀌면서 강판 공급 가격도 분기별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GM대우는 포스코의 가격 인상 및 분기 협상 요구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홍수 기자 shs@

안드로이드 열풍...아이폰4에 영향 미칠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하 안드로이드폰)이 통신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내 출시가 임박한 아이폰4에도 영향이 미칠까 통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 OS(iOS)전용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가려졌던 안드로이드폰은 최근 갤럭시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여기에 KT에서 판매 중인 넥서스원, 이자라와 LG U+ 옵티머스Q 등을 합하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수는 1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이폰3GS가 현재 약 9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안드로이드폰 가입자는 지난달을 기해 이미 아이폰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이재영 기자 jly0403@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4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리에서 열린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창우리서 만난 현정은 회장은 김중겸 사장 ‘현대건설 인수’ 무슨 이야기 했을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이 지난 4일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7주기를 맞아 하남시 창우리 선영에서 만났다.

이들의 만남은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그리고 법 현대가 등이 민감하게 엮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현 회장은 오전 11시 예정된 참배에 앞서 10시 40분경 선영을 찾았다.

이에 앞서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등 임직원 20여명은 고 정몽헌 회장의 선영에서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현 회장과 만났다.

현 회장과 김 사장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후 현 회장은 곧바로 선영으로 올라갔고, 김 사장 역시 바로 자리를 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매년 고 정몽헌 회장의 기일에 맞춰 선영을 찾고 있다”며 이들의 만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최근 현대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권단과의 재무구조개선행업 논란의 핵심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돼 있다는 점, 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

들의 만남은 남다른 관심을 끈다.

또 현대건설은 현대상선의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현대그룹의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특별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안부 정도 묻는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무구조개선작업 체결을 계속 거부할 것인지, 현대건설 인수전 선악업 논란의 핵심이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돼 있다는 점, 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

하남=김영진 기자 yjkim@

성공학점은행 | baeumland.com

“이제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자”

[전체학과 수석합격 / 최고령(75세)합격 / 최연소(19세)합격]



1년만에 독학사 전체학과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1년 3개월만에
91년생 독학사 최연소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35년생 독학사 최고령 합격자 배출
평생교육진흥원장상 수상
2009.2.23 서울교육문화회관

최단기
학사 취득의
문이 활짝!!!

- ① 단기간에 학위가 필요하신 분
- ② 고졸자로 단기에 학위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
- ③ 전문대 졸업자로서 정규대학 학사편입을 원하시는 분
- ④ 서울 중위권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
- ⑤ 독학사, 방송통신대, 정규대를 중도 포기하신 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 4227호 : 1990. 4. 7)

저렴한 비용으로 단시간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학사시험은

1990년 대통령령 4227호에 의거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년 동안 단계(3월, 6월, 9월, 11월)에 맞는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학위취득 시 취업, 승진, 대학원진학, 학사편입 등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56명의 박사
급 이상의 서울대, 연세
대, 고려대 전 현직 교수들이
폐년 교재, 문제집,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으로
직장인이 하루에 1~2시간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전공 (8개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경영학과
- 법학과
- 가정학과
- 컴퓨터학과
- 유아교육학과
- 간호학과

성공학사고시 | www.baeumdhs.com

자료 및 상담 무료 1644 - 8144

SAMSUNG 상생전담기구 신설... '윈·윈' 파트너십 구축

협력업체 늘리고 납품가 현실화 인재육성 맞춤형교육도 지원키로

삼성그룹은 최근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1차 협력업체 수를 늘리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협력 확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제조 계열사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실천 중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5월 상생협력실(올해부터 상생협력센터로 명칭 변경)을 신설한 이후 '상호 경쟁력을 바탕으로 윈-윈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금결제 비중 강화와 같은 미시적인 방법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 원가, 기술 경쟁력은 물론 경영관리 기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의 지

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내 전문가 및 외부 컨설턴트를 지속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동반 진출한 해외사업장까지 연계), 제조 경쟁력 외에도 공동기술개발 과제 진행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협력사가 아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열린 혁신체제' 도입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삼성SDI는 협력회사의 종합적인 경쟁력 향상과 상생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상생협력 T/F를 운영 중이다. 상생협력 T/F에서는 협력사의 △협력회사의 제조 및 설비혁신 △품질보증 △환경경영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기

저탄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사업 △새로운 S-파트너 제도 실시 등 녹색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05년 이후 'S-파트너'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협력회사와 거래 시 품질, 가격, 납기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부문의 평가결과 반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 장기적 가치의 동반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소기업형 저탄소 그린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국책과제인 대·중소 저탄소 그린파트너십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협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온실가스 진단 지도 및 감축활동, 성과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



했다. 삼성전기도 협력회사와 상생을 위해 '윈윈플라자'를 오픈·운영 중이다. '윈윈플라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삼성전기의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가

격, 기술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내에 설치한 특별공간이다.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샘플 및 신제품 대응 시간 단축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인한 시너

지 효과가 대폭 증대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는 '협력회사 윈윈(Win-Win) 활동대회'를 개최해 경영 혁신활동의 성과가 뛰어난 우수 협력회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혁신사례를 공유

전파하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경영닥터제'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철근 기자 ckpark@

상상에 기술을 더해 꿈을 현실로!

driving science

미래 첨단자동차에 대한 당신의 상상, 현대모비스의 연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힘이 되는 드라이빙 사이언스의 세계 - 미래의 자동차를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상상해 주세요. 당신의 상상력에 현대모비스의 첨단기술이 더해지면 내일의 자동차 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

HYUNDAI MOBIS driving science

기술제휴 · 공동기술개발 · 노하우 전수

SK그룹은 협력업체와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제휴·공동기술개발 및 노하우 전수 등 계열사별로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그룹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SK상생펀드는 기업은행과 함께 1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자금이 필요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 지원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대중화와 이를 통해 촉발된 무선인터넷 활성화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스토어 활성화로 개인 개발자는 물론 벤처 기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욕을 북돋우고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와 상생을 통해 모바일 만화 및 게임 콘텐츠를 각각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모바일 전문 교육 센터인 'T아카데미 (www.tacademy.co.kr)'가 3월 말 첫 학기를 시작했다.

SK텔레콤 흥성철 서비스부장은 "T아카데미가 모바일 콘텐츠 육성 및 개발자 저변 확대에 기여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과 개발자 중심의 혁신적인 상생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폭적으로 개발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외부 부상 지붕형 원유저장탱크(Floating Roof Tank)의 2차 유류 증발방지장치 개선 방안을 협력업체인 월드브리지산업과 공동 개발해 실용실안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억원의 정비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 해당 업체는 이 기술로 인해 향후 국내 타 정유회사들에 20억원의 매출 달성 및 해외시장의 수출에 있어서 50억~60억원 정도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SK에너지와 월드브리지산업은 이 개선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jk@

'준비된 상생' 보증 프로그램 조성

포스코는 그룹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한편 계열사들 역시 파트너십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포스코 계열사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방증이다.

포스코건설이 협력업체들의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칠레,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평가받아 우수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포스코IT, 포스코컴텍, 포스코플랜텍 등이 내란히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본사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상생경영 실천도 적극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7월 2차 이상 협력 중소기업에까지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1차 협력 기업에 국한되고 있어 2~4차 협력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납품단가 조정은 물론 자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1차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미

칠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의 계약약관에 납품단가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부족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3300억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한편 2000억 규모의 금융지원펀드를 운용해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가 조정 및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부문에서도 지원책을 펼쳐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박사급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실험 장비도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 또 신입사원 도입교육, e-Learning 교육 등 기존 1차 협력 기업에 국한돼 있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심홍수 기자 shs@

新車 기획 · 설계 단계부터 협업 긴밀 공조



車업계 첫 협력사 협의체 구성 경영활동 지원도...상생문화 앞장

현대차그룹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자동차산업 전반적으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여느 완성차 메이커와 의미가 다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현대차그룹 관계자와 1·2차 부품 협력사 대표자 등 총 250명이 모인 가운데 '현대차그룹 협력사 상생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순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와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향후 부품 협력사들과 신차 기획, 설계 단계부터 협업을 강화하고 신기술 공동개발에도 협력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1차는 물론 2·3차 협력사 품질 및 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 참석대상은 기존의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상생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협력사 상생 협의체는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사들이 2차 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협의체가 운영돼 왔으며, 이번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간 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모기업과 1·2차 협력업체간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상생협력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상생 협의를 통해 수립된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 의결을, 1,200여개 2차 협력사 정기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뿌리산업의 중심을 이루는 2·3차 협력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현대차그룹이 진행 중인 다양한 부품 협력사 지원제도 및 현황 소개 △뿌리산업의 바탕이 되는 2·3차 협력사들의 부품 품질 확보 방안 논의 △현대·기아차 R&D 부문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 등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품질 및 기술 개발 지원과 현대차그룹의 뿌리산업 상생협력 확대의 지를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현대·기아차는 뿌리산업을 구성하는 2·3차 업체들을 비롯한 협력사들을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분야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기술자들을 현대·기아차에 파견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게스트엔지니어링 제도' △협력사들의 신기술 제안 및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은



'R&D 협력사 테크데이' △협력사들의 직접 참여하는 자동차 시트 분야 전문 학술대회인 '시트 R&D 심포지엄' 등 다양한 R&D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초 협력사들과 공

한 거래질서 확립,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

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2·3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재무 건전화, 품질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경영활동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1차 협력

사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는 2·3차 협력사들의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중소업체 경쟁력 높여 '윈·윈' 실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



LG그룹은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목표를 '정도 경영을 기반으로 협력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 성장'으로 정하고 상호 윈·윈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일 LG그룹은 주요 계열사 상생협력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중소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회의'를 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서브윈 등 10개 주요 계열사의 상생협력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면서 LG와 협력업체가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LG그룹은 이미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경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1700여개 하도급 협력회사에 대해 100% 현금성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2008년 11월엔 9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LG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갖고 현금성 결제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하도급 협력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통한 직접대출 및 금융기관 여신 지원 등 금융지원 규모를 2008년 1750억원에서 2009년 3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시 LG는 협력회사와 미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품질 기술개발 지원 △인력 교육 지원 △경영지원 등 그릇차원의 5대 상생지원 체제도 발표했다.

오는 9월 중엔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이노텍, LG CNS, LG엔시스 등 8개 계열사가 협력업체들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술 및 인력, 교육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중소와 동반성장 '3불정책' 선언



KT는 지난해 6월 KTF와 합병이후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며 통신업계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최저가 입찰 폐지 방지, 유지보수비 지급 확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자립기반 강화, 현금 결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등 구매제도 혁신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해왔다.

또 오픈 에코 정책을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자를 지원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IT 생태계를 구축, IT 산업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실제로 KT 구매전략실이 지난 5월 11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구매 혁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협력사 제도 등 15개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으로 나타나 구매 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상생협력을 위해 '3(불) 정책'을 선언했다. 3은 △중소기업 지원이 KT로 인해 낭비되지 않게 한다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KT의 약속이다. 이 가운데 이달부터 시행 중인 수요 예보제는 시장 및 기술 트렌드와 단기, 중기 사업 전망에 따른 구매 수요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업계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물량 수요 예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지난달 말에 1차 자료 제공 후 변동 사항을 협력사와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상호 협력 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맺어 제안 사항이 타 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KT 내부에서 NDA를 위반해 아이디어 제안 사항이 유출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 보상 구매 제도를 신설, 제품 개발 필요 없이 상용화가 가능한 경우는 제안 협력사에 최대 50%까지 구매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별도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 성공시 일정 기간동안 구매를 보장하게 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는 IT 핵심 솔루션 분야에 55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모바일 앱 콘텐츠 분야에는 기존 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한다.

배근득 기자 lab13@

여름이니까~ 맥심아이스커피

어떤 여름을 맞고 싶으세요?
100%아라비아 원두로 시원하게 즐기는 오리지널, 신뜻하고 깔끔한 맛으로 사로잡는 블랙, 깊고 부드러운 향의 헤이즐넛까지! 맥심 아이스크림으로 시원한 여름을 만나세요~!

Maxim ice Coffee

금융·교육지원...글로벌기업 동반성장



두산그룹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1일 창립 114주년 기념사를 통해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두산이 되려면 두산 고유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

이에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박용성 당시 두산 회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협력사 대표, 5개 계열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용성 회장은 "협력회사들과 함께 성장. 발전해야 글로벌 두산이 될 수 있다"며 "상생협력 신철로 상생협력 노력을 체계화하고 협력사와 함께 제품 국산화 공동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은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이후 합리적 단가산정 등을 위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협력업체와 '제품 국산화' 공동 개발 지난해부터 '협력기업' 대출도 시행

· 운용 등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이를 준수하면서 상생협력을 실천 중이다.

계열사별로는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전자계약을 담보로 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협력기업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협력사는 계약금액의 80% 범위까지

일반 신용대출보다 약 3%포인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한 대출금은 두산중공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자동으로 상환된다.

이 제도는 선금금이 없는 계약이더라도 운영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 7월말 현재 31개사에서 170억원을 받아 갔다.

회사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4조원

(2009년 기준) 정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20%만 이 제도를 활용해도 1.2차 협력기업에 대해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은 이와 함께 플랜트 분야 협력사 406곳과 협약을 맺고 ▲품질관리 ▲기계공공 ▲용접기술 등 9개 분야 24개 훈련과정을 통해 1200명에 대한 교육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김명우 두산중공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단장(전무)은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과 시설을 활용해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두산엔진은 정부가 개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협력업체 세나코와 선박용 전자제어엔진 연료 분사 컨트롤 밸브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금아유압과는 선박용 전자제어 엔진의 유압공급 펌프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3건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또 올해도 유압 오일펌프 국산화 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확대, 운용하고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도 않는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모범거래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2회 (주)한화·협력회사 상생



"중소는 사업의 동반자" 고객만족 무료교육 시행



한화그룹은 협력회사와 상생협의를 통해 협력회사의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고객만족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한화-협력회사 상생협의회는 (주)한화 대표이사를 협의회장으로 77개 협력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호혜정신, 상호협력, 제안제도, 인센티브 제도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한화-협력회사 상생협의회 정례회, 구매 조건부 협력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공동참여, 기업 협동형 기술개발, 상호 호혜정신에 입각한 적극적 정보 및 기술 교류, 협력회사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협력회사의 신사업·기술·원가 절감 등의 제안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한화 남영선 대표이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얻은 것은 협력회사들의 상생의 협력정신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화는 ▲우수 협력회사에 대한 전액 현금 지급 등 대금지급 조건 개선 ▲협력회사의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 확보 등을 위한 직접 자금지원 확대 시행 ▲품질간담회의의 내실화 및 급형, 치구 무상대여 등 협력회사 품질개선지원책 확대 등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의 금융계열

사인 대한생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우행터)'도 관심을 끌고 있다.

우행터 프로젝트는 관공서·병원·기업체 등 단체기업고객들이 요청하면 대한생명의 CS전문강사가 찾아가 무상으로 고객만족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마인드 향상'에서부터 비즈니스 매너, 이미지 메이킹, 상담기법, 불만고객응대 같은 외부고객 대응 기술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 의식 전환을 위한 행복을 찾아서, 스트레스 해소 및 즐거운 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 대비 강의지원 컨텐츠의 다양·차별성과 교육의 질적수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 CS교육에 참가했던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 교육담당자는 "멀리서 찾았을 정성에 감동하고 전문적인 교육수준에 또 한번 놀랐다"며 "교육을 통해 상담자세의 전환적인 변화 유도도 전화민원 서비스 품질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응대하는 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들러 한화건설도 우수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위해 2002년부터 상생협력 증진의 장(場)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주)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 8개 주요 계열사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j@

공동 기술개발·제품생산...마케팅 지원까지



동부그룹의 상생협력은 제철을 시작으로 건설과 반도체 부문의 동부하이텍까지 전 계열사에 걸쳐 치러지고 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제품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협력업체의 경영개선 활동과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등 활발한 상생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하이텍의 경우 국내 반도체 설계사들과 반도체 생산과 기술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및 유망 반도체 기업들과 지분투자를 시작으로 마케팅지원 지원까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다.

해당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동부하이텍은 안정적인 제품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비즈니스

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고 있다.

건설부문 역시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대안공법을 제안해 원가를 절감하게 되면 줄어든 비용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협력사를 보호하고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경영자들을 초청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도 열어 상생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협력업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를 최고의 업체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철강 메카로 떠오른 충남 당진에 전기료를 세운 동부제철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갖고 있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기 위해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안전관리 교육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생산환경 개선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방화문용 컬러강판 신제품을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해 시장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동부CN의 경우 중소기업의 IT 정보기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략적 협력업체 육성지원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동부CN은 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협력사들의 IT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품질관리 기법

을 전수해주고 있다. 또 협력업체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계약방식도 프로젝트당 업무 수행능력을 증시하는 도급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별로 각각의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고 분야별로 실행 중이다"고 전하고 "단순한 제품 개발이나 자금 지원 차원을 넘어 협력사와 동반 마케팅까지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창출 효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 <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찹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뵙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귀사의 잡지와 사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희승그림사보 여름호 가스기술 행복플러스 여름호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와 [이]투데이 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Stay Ahead는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의지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3948호(2010.8.6~2010.9.2)

Stay Ahead™

“신흥시장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회복은 한국 대표기업들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펀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한국 대표그룹주의 경쟁력에 투자합니다.

(단위: %, 세전)

구분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펀드 - Class A			
	6개월	1년	3년	설정일 이후
펀드 수익률	17.6	23.4	13.9	66.5
벤치마크	10.4	13.9	-3.2	25.2
초과 수익	7.2	9.5	17.1	41.3

·기준일: 2010. 8. 31 ·설정일: 2007.12. ·설정액: 4,464억(세전) ·벤처마크: KOSPI 95% + CO 5% ·출처: 제1회 삼성자산운용
·Class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와 설정일 등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펀드 매니저 남동준 본부장



당신은 위한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증권 펀드 [주식]



삼성펀드에 가입하시면 3D TV를 드립니다

응모조건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펀드, 삼성 스트라이크 펀드 가입 고객 중 가입 금액에 따라 응모권 부여
※ 적립식 월 20만원 단위로 응모권 1회 부여 (3년 이상 자동이체 조건) ※ 거차식 500만원 단위로 응모권 1회 부여 ※ 1억 이상 투자시 1억 단위로 응모권 1회 부여 (별도 추첨)
추첨방식 총 3회 추첨(7, 8, 9월초)하여 매월 6명씩 총 18명에게 증정(재세공과금 당사 부담)
※ 매월 6명 추첨 - 적립식 / 1억 미만 거차식 투자자(4명), 1억 이상 거차식 투자자(2명) ※ 추첨 후 판매사별로 홈페이지 등에 당첨자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
행사기간 2010년 5월 24일 ~ 201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 대상 (8월 31일 오후 3시 이전 매수신청까지 유효)
경품내용 삼성 PAVV 3D LED TV 46인치 (총 18대)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부재, 주소지불명 등의 이유로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산자격을 상실됩니다

- 공통 판매사: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교보증권, 동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 코리아대표그룹 판매사: NH농협,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대를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금호생명, 대한생명
- 스트라이크 판매사: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LIG투자증권, 한양증권, 흥국증권

퇴직연금도 삼성의 믿음으로! 삼성 퇴직연금 코리아대표 40 증권 펀드 [채권혼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 참고 또는 콜센터 080-377-4777 (상담: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문의하세요

1. 할매법: 코리아대표그룹, 스트라이크-오후 3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오후 3시 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퇴직연금 코리아대표 40-오후 3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오후 3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 지급 2. 환매수수료: 코리아대표그룹-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스트라이크-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퇴직연금 코리아대표 40-90일 미만 이익금의 30% 3. 신약보수: 코리아대표그룹 Class A-선취 1%+연 1.69%(연매 0.90%, 집합투자 0.76%, 신약 0.03%), Class C-연 2.29%(연매 1.50%, 집합투자 0.76%, 신약 0.03%), 스트라이크 Class A-선취 1%+연 1.43%(연매 0.72%, 집합투자 0.68%, 신약 0.03%), Class C-연 2.11%(연매 1.40%, 집합투자 0.68%, 신약 0.03%), Class Ce-연 1.97%(연매 1.26%, 집합투자 0.68%, 신약 0.03%), 적립식 Class-연 1.97%(연매 1.26%, 집합투자 0.68%, 신약 0.03%), 퇴직연금 코리아대표 40-연 0.80%(연매 0.55%, 집합투자 0.23%, 신약 0.02%)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



경기 서북부 일산 유통문화가 바뀐다

경기 서북부 최고 상권인 일산의 유통문화가 바뀌고 있다. 명품백화점을 지향하는 현대백화점 킨텍스점과 홈플러스가 이달 중 오픈할 계획인 가운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경쟁업체들도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에 나서고 있다. 일산 지역은 지난 달 말 제2자유로가 개통되면서 일산대교와 제2자유로를 통해 파주시, 김포시에서 차량으로 10분 내 도착이 가능해 경기 서북부를 아우르는 광역 상권이 될 전망이다. 유통업체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이탈하는 명품족 유혹

현대백화점은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명품 백화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킨텍스점을 명품백화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입 명품 브랜드를 대거 유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 서울로 이탈하는 명품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략이다.

지하 1층~지상 9층에 연면적 3만4650㎡(1만481평)로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버버리, 카르티에 등 명품 브랜드 20여개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해외명품과 시계관련 매장을 포함 총 4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600개 좌석을 갖춘 대형 문화홀도 들어선다.

또 백화점 옥상과 5~6층에는 7500㎡에 이르는 하늘정원이 들어선다. 여기에는 한강과 일산 호수공원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함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도 마련된다.

롯데백화점 등 리뉴얼 현황

롯데백화점 일산점은 9~10층에 롯데백화점 최초의 문화홀을 360

석 규모로 열고 지하 1층에는 갤러리를 만들며 '문화 백화점'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전관 리뉴얼을 실시하고 있다. 리모델링 끝나고 지난 3일 선보인 8~10층에는 기존 롯데시네마를 내보내고 가정생활, 식당, 문화홀, 문화센터 등으로 꾸며졌다.

9~10층에 문화홀과 영풍문고도 새롭게 선보였다. 일산점은 앞으로 지하 1층에 멀티캐주얼·유니클로 등 20~3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강화해 '영패션 전문관'을 신설하는 등 12월까지 리뉴얼을 완료하면 현재 2만7587㎡(8345평)에서 3만4512㎡(1만440평)로 매장 규모도 확대된다.

오는 26일 오픈하는 홈플러스 킨텍스점은 '대형마트의 몰링'이 컨셉이다. 한 공간에서 백화점 쇼핑과 생활용품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영화·오락 등 문화생활까지 결합할 수 있는 복합문화쇼핑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또 지하 1층~지상 1층 매장의 예도 현대백화점과 연계해 '멀티



이달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사진) 오픈을 앞두고 경기 서북부 최대 상권인 일산 유통가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있다.

현대백화점 킨텍스점·홈플러스 이달중 오픈 롯데·이마트 등 기존업체는 리뉴얼로 맞대응 파주·김포 아우르는 광역상권 경쟁치열할 듯

일산지역 백화점·대형마트 현황

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 2010년 8월 말 레이스킬을 입점·연면적 3만4650㎡(1만481평) · 명품 브랜드 20여개 입점 '영패션 백화점' 표방	· 2009년 8월 리뉴얼 작업, 2월 공사완료 · 연면적 3만4512㎡(1만440평) · 문화홀을 360석 규모로, 원공 문화 백화점 지향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홈플러스	· 정형동 1996년 11월 6일 오픈 · 연면적 4만9223㎡(1만4889평) · 레이스킬을 입점, 8월26일 오픈	· 일산점 확장점, 탄현점 등 총 3곳 운영 · 현재 탄현점 부분 리뉴얼 중
이마트	· 주업점, 확장점, 고양점 등 3곳 운영 · 일산 점포확장에 대해 고려	

존'을 꾸며 주부 고객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 입맛까지 사로잡을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일산점, 화정점, 탄현점 등 총 3곳을 운영하는 이마트도 탄현점 부분 리뉴얼에 들어갔고 롯데마트도 일산점(총 3곳 운영) 점포 확장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들이 고급 문화시설 확충과 브랜드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일산 유통상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일산 주민들에게 새로운 쇼핑문화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창업시장에도 '친환경' 열풍

외식 프랜차이즈 속 관심제품 내보

식육업계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친환경' 열풍이 최근 창업 시장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친환경 창업 아이템이 등장, 새로운 유망 업종군을 형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화학조미료 등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들거나, 국내산 식재료와 친환경·유기농 재료들만을 사용해 안전지수를 높인 안심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쌈전문점 '원활머니보쌈'과 웰빙부대찌개전문점 '박가부대찌개·두루치기' 등을 운영하는 전문점업 '원앤원(주)'은 모든 주력 제품에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사용하지 않는다.

치킨전문점 '포래오래', 삼겹살·꽃등심전문점 '웰빙마을', 바

비류전문점 '바베큐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목우촌'은 국내 양축농가에서 사육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순수 국내산 축산물만을 사용한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가공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목우촌에서는 농협의 이름을 걸고 국내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원료를 김제공장에서 위생적으로 가공해 각 가맹점에 공급한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유기농화장품전문점 '닥터올가팜'은 국제적으로 공인력 있는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부여된 제품만을 판매하는 국내 최초 유기농화장품 전문점이다. 실제환경관리업체들도 천연재료 사용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 소비자로부터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

김소희 기자 sohee@

B형간염 치료제 국내사들 '반격'

하반기 잇단 신약 출시...다국적사와 한판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1800억원 시장을 놓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는 외국계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이 주로 처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라크루드'는 미국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키브(BMS) 제품이고 5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헬세라'와 '제픽스'(467억원)는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제품이다.

국내사로는 부광약품이 신약인

'레보비르'를 지난 2007년에 출시했으나 2008년 176억원, 2009년 173억원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J제일제당을 필두로 녹십자, 제일약품, 명문제약 등이 기존 제품을 복제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제품을 개발, 출시해 관심을 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기존 헬세라 기록한 '바라크루드'가 갖고 있는 조성물 특허를 피한 무정형 아데포비어를 개발해 특허를 회피할 뿐 아니라 역상결정크로마토그래피와 고체분산제 기술로 고순도 대량생산을 가능케 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SPC그룹 '우리햇밀' 제품 출시

SPC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올 초여름에 수확한 우리햇밀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며 파리바게뜨를 통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한정 판매한다.

SPC그룹은 2008년 우리밀 전문 가공업체 밀다원을 인수하면서 우리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된 우리밀은 밀다원을 통해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사, 삼립식품을 통해 제품화

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상저온 및 기상악화로 예상했던 수매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SPC그룹은 약 1만5000톤을 수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우리밀에서난우리햇밀식빵, 우리햇밀군고구마, 우리햇밀분말리슈, 명가명품우리햇밀로만든카스테라 등으로 아이들이나 어른들 간식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출시됐다.

김소희 기자 sohee@

홈플러스 "가격 거품 뺀 명품 사세요"

프라다·샤넬 등 17개 브랜드 30% 할인판매

이젠 마트에서도 인기 명품 브랜드 상품을 살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명품수입 전문회사 오르루체코리아와 손잡고 프라다, 샤넬, 구찌, 페라가모 등 인기 명품 브랜드 상품을 시중 백화점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국내 대형 할인점 최초 시도다.

이번에 홈플러스가 선보이는 명품은 오르루체코리아가 현지 브랜드 총판과 정식 계약을 맺고 직수입한 정품으로 시중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하고 백화점과 동일한 A/S를 제공한다.

취급 브랜드는 프라다, 샤넬, 구찌, 셀렌스, 발리, 페라가모, 펜디, 발렌시아가, 마크제이콥스, 입생로랑, 지미

추, 버버리, 톨체앤가바나, 크리스찬 디올, 미우미우, 끌로에, 에트노 등 17여가지로 가방 60여점, 지갑, 구두, 벨트 등 잡화 150여 점, 의류 100여 벌 등 총 300여 종의 상품 구성을 마련했다.

주로 고객층이 폭넓고 비교적 유행에 덜 민감한 탑 브랜드와 패션 흐름에 맞춘 세컨드 브랜드를 혼합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고객 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홈플러스측은 설명했다.

특히 가방, 잡화 등은 신상품 70%, 스테디셀러 상품 25%, 이월상품 5% 비중, 의류는 신상품 30%, 이월상품 70% 비중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은 시중 백화점보다 최대

30% 저렴하다. 이는 직수입을 통해 유통마진을 낮추고 홈플러스가 판매 수수료를 시중 백화점보다 20~30%포인트 저렴한 8%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신상품은 시중보다 10~15% 가량 저렴하고 스테디셀러 상품은 20~30%, 이월상품은 최대 50% 싸다.

시중 백화점에서 460만원 대인 샤넬 빈티지 2.55백은 시중보다 80만원 저렴한 380만원이고 시중 300만원 대인 크리스찬디올 다이아나백은 240만원, 시중 200~300만원 대인 쿠치넬리의류는 70~100만원 대, 시중 300~400만원 대인 보테가베네타백은 100만원 가량 저렴한 200~300만원 대에 판매된다.

김소희 기자 sohee@



홈플러스 매장에서 고객들이 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당신의 간은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까?

만세!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지는데, 사람은 더욱 바빠지는 세상. 이제 건강 관리는 건부터 시작하세요. 우루소대옥시콜린산이 함유된 우루사로 언제든 될 허든 힘차게 만세! 느껴보세요, 우루사 효과! 건강한 간은 만세를 외칩니다

우루소대옥시콜린산 함유

우루사

www.urso.co.kr
소하리당 080-550-8308~9



경기부진 딛고...워크아웃 건설사들 비상중

이수·월드·우림·동문·경남기업 등 시공능력 순위 경중 구조조정 후 잇단 수주·경영 정상화로 조기졸업 가능성 높아



금융위기 이후 기업개선택업(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작년 초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2010 시공능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결과 이수건설 월드건설 동문건설 등 1차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관정을 받은 건설사들의 2010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큰 폭 상승조정 됐다. 이수건설은 지난 워크아웃 이후 2009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82위를 기록하며 18계단 추락했다가 올해 66위로 급상승했다. 동문건설도 작년 95위로 떨어졌었지만 올해 67위로 뛰어 올랐다.

월드건설은 작년 80위에서 올해 71위로 9계단 수직상승 했으며 동림산업도 1계단 상승한 24위를 기록했다. 경남기업과 우림건설은 각각 17위와 54위를 차지하며 순위를 유지했다.

건설·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인해 시공순위 100위권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약진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상태 호전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쟁 건설사들의 상대적 하락, 알짜공사 수주 등을 통한 내실 위주의 수주전략,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임직원의 열정이 낳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차 구조조정을 통해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은 구조조정 이후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단순 도급공사 수주 확대 등을 피하며 경영 정상화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작년 초 워크아웃을 개시할때만 하더라도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것에 비하면 회사 사정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월드건설 관계자 역시 "워크아웃 개시 이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나름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채권단과 약속한 기간보다 더 빨리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성일·김부미 기자 hsi@

시공능력평가액 =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것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실력을 절무라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땅·컴퓨터만 있다면 집도 인터넷으로 쇼핑

SK D&D '11번가'와 제휴 온라인판매

땅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 '클릭' 한 번으로 단독주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 계열 개발회사인 SK D&D는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와의 제휴를 통해 단독주택 브랜드 '스카이홈'의 온라인 판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1번가'를 통해 시범 판매되는 '스카이홈' 모델은 50형으로 2층 고급주택이다. 최고급 내외장재를 포함한 가격은 2억7670만원선. 주택 구매를 원하는 소비

자들은 '11번가' 쇼핑 페이지에서 스카이홈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품 페이지의 Q&A, 홈페이지 방문, 대표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담당사원의 부지방문, 상품 및 설계협의, 계약을 통해 주택 판매가 이뤄진다.

SK D&D는 이번 '50형' 모델의 온라인 시범판매를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모델들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소득·재산 많으면 시프트 못들어간다

미성년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0순위

빠르면 다음달부터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는 0순위가 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

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연소득 4668만원, 4인 가구는 연소득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연소득 5640만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를 제한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

~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다만,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경우 85㎡ 초과 주택을

시프트 입주 소득 자산기준 입법 예고안

구분	현행	변경	
소득	60㎡ 상인형 이하 매입형	70%	70%
	60~85㎡	-	100%
	85㎡ 초과	-	150%
자산	60㎡ 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60~85㎡	부동산 2억2600만원 이하	부동산 2억500만원 이하
	85㎡ 초과	-	부동산 2억5500만원 이하
우선	60~85㎡	3자녀 무주택자 10%	3자녀 무주택자 20%
	85㎡ 초과	-	4자녀 이상 무주택자 10%

*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 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다소 연기할 예정이다.

김부미 기자 boom@

7월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19개월 만 최대

7월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금융위기 여파가 절정이었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7월 한달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0.3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12월에 -0.91%를 기록한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도권 전체는 -0.51%를 보였으며 지역별로 ▲서울 -0.48% ▲신도시 -0.66% ▲경기 -0.56%를 기록했다.

서울(-0.48%)은 3차 보급자리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 4월(-0.51%) 이후 최고 하락폭을 보였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된

지난해 10월(-0.05%)보다는 9배가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다.

신도시 역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급락했다. 특히 ▲과주교하 -0.93% ▲일산 -0.82% ▲평촌 -0.78% ▲분당 -0.74% 순으로 크게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밖에 지역별로 ▲의정부 -2.45% ▲의왕시 -1.21% ▲안양시 -1.14% ▲동두천시 -0.95% ▲고양시 -0.71%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 역시 비슷한 사정이다. 지난해 1월(-0.32%)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 -0.54% ▲계양구 -0.48% ▲동구 0.27% 순으로 하락했다.

강명훈 기자 augustin@

부동산 침체 그늘 2題

광고신도시 "너머저" 청약 1순위도 미분양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인 광고신도시 조차 부동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 1순위 청약통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광고 대광 로비제'은 145가구 모집에 35명만이 청약해 평균청약 경쟁률 0.25대1에 그쳤다. 105가구를 분양한 전용면적 84.52㎡는 26명이 신청했고 84.64㎡의 경우 40가구 모집에 9명만이 청약했다.

광고신도시는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최고인기지역으로 손

꼽혔던 곳이다.

특히 광고 '대광 로비제'은 모든 물량이 전용 84㎡로 실수요자에게 선호되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기록을 보여 충격이 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올 초 분양한 경기도시공사의 광고 자연엔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24대 1. 지난 5월 분양한 광고 e편한세상은 평균 10.42대 1로 모든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 마감돼 '대광 로비제'역시 1순위 마감에 기대됐었다.

김부미 기자 boom@

중대형 기피 때문에...은평뉴타운도 발목

은평뉴타운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 기피현상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2일 마감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1~3지구 1순위 접수 결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은 경쟁률은 12대 1(22가구 모집)을 기록했지만 85㎡ 초과 민영주택은 1.3대 1(260가구 모집)의 낮은 경쟁률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2지구 청약접수 때 국민주택은 5.3대 1(276가구 모집), 민영주택은 2.2대 1(1742가구 모집)을 기록한 것에 비교했을때 중대형과 중소형 간

경쟁률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중대형은 모두 9개 블록, 18개 주택형이 청약자 모집에 나섰으나 이중 4개 주택형만 1순위에서 마감되고 나머지 14개 주택형은 모두 미달됐다. 지난 2일 1순위 접수를 한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총 9개 블록, 18개 주택형이 청약자를 모집했다. 이중 4개 주택형만 마감되고 나머지 주택형은 모두 1순위 미달됐다. 3A-1블록 134·166㎡와 3C-8블록 101㎡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제로 청약률'을 기록했다.

김부미 기자 boom@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통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내 융복합 보안관제센터 구축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미래를 준비하는 토종 보안 기업 선두주자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보안산업은 전문적인 기술 중심의 흐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물리적, 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보안을 토대로 역동적인 글로벌 진출이 이뤄져야 한다.” 토종 보안 업계 가운데 손꼽히는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향후 보안산업의 먹거리는 ‘종합보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보안산업이 태생되던 지난 2000년 이전부터 보안에 뛰어든 명실상부한 1세대로 이글루시큐리티의 발전과 함께 보안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지난 4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이글루시큐리티는 지난 11년간 축적해온 차별화된 노하우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득춘 대표의 ‘넥스트(NEXT)’ 경영철학이 의미하며 이글루시큐리티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창립 11주년과 코스닥시장 등록을 축하한다. 그동안 이글루시큐리티가 걸어온 발자취를 설명한다면.

▲ 회사를 창업할 당시에는 보안시장은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였다. 특히 보안서비스 분야는 보안 장비 및 솔루션과는 달리 전세계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고 보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회사를 창업하게 됐다. 회사를 창업한 후에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을 꾸준히 만들어가며 넥스트(NEXT)를 준비하고자 했다.

보안관제 서비스로 사업의 첫 단추를 채우고 나니 고객 요구가 그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점차 관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통합보안관리솔루션(ESM) ‘스피어더’다. ESM솔루션이 차세대 보안제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국가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금융권 등 여러분야로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9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ESM을 주력으로 보안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많은 고객사로부터 정보보안관리뿐 아니라 물리, 산업보안을 한번에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게 됐다. 이를 반영해 연구 개발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산업보안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모든 영역의 안전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현하는 융복합보안관제 솔루션 ‘라이거(LIGER)-1’이다. 사실 지금이야 ‘융복합보안’이라는 단어가 일상용어가 됐지만 우리가 라이거-1을 개발, 준비하던 3년 전만해도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가 ‘지식정보보안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안업체에서 화두로 떠올랐고 벌써 산업계에 파급효과 일반인들에게 각인되는 것을 보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안업체로서 몇 안 되는 토종기업으로 알고 있다. 10년 전 보안시장과 현재 보안시장을 비교한다면?

▲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대부분 보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 종류의 핵심제품에만 주력하며 전문영역을 구축, 자기만의 시장을 확보해 나갔다. 즉 방화벽 전문 업체, 서버보안 업체, 보안컨설팅 업체 등 각 업체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한 가지의 전문 영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 매출 100억원을 바라보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한 제품에만 승부를 걸지 않는다. 자사가 가진 대표 제품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너지 창출을 할 여러 제품을 파생시키며 종합보안업체로의 사업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최근 국내 보안업계 시장의 가장 큰 변화인 셈이다. 앞으로는 솔루션을 근간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보안 분야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장의 변화는 이글루시큐리티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이글루시큐리티 강점은 사업 초창기부터 통합보안솔루션과 통합보안관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10년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정보보호 영역에 한정돼 있었던 보안의 개념을 뛰어넘어 물리적 보안과 산업보안의 성공적인 결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역동적인 시간이 돼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글루시큐리티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건 지난 4일 코스닥 상장인데 코스닥 입성을 결심한 계기는?

▲ 사실 창립한 지 11년째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빨리 코스닥 입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보호업계에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희소식이기도 하기에 어쩐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또 과거 코스닥에 상장했던 보안기업들이 초반과는 다르게 주력업종을 전환하는 등 좌초되는 모습을 보여준 전례도 있어 그동안 주변 격려의 말 보다 앞으로 들어가 할 비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 코스닥 상장을 미룰 수 없었던 것은 이글루시큐리티에 있어 상장은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발판인 동시에 R&D에 집중 투자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향후 5년 이내 서울 광교로 사업장을 이전·확장하면서 정보보안, 물리보안, 산업보안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자체 융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사내에도 구축 됐지만 정보보안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보안산업 먹거리는 종합보안에서 찾아야”

물리보안, 산업보안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이글루시큐리티만의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해 가동해 첫 사업을 보안관제로 시작해 많은 보안관제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이글루시큐리티가 보안관제서비스 리딩업체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

또 우리가 가진 핵심역량에 집중하면서 R&D 및 신규솔루션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며 국내에서 도약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 즉 코스닥 상장은 이글루시큐리티가 세계적인 보안회사로 커 가는 장단기 계획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지난 15~16일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에서 확정 공모가 1만4000원을 받았다. 그동안 상장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 고생이라고 할 건 크게 없었다. 다만 IPO를 위한 준비기간이 좀 길었다. 이글루시큐리티에서

IPO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 4년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선불리 진행 할 수 없었던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 좀 더 신중히 진행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장을 준비하면서 처음 일정 단계부터 내가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없다. 체계적인 재무 및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 예정이었던 IPO를 미루게 됐고 올해서야 진행을 한 것이다.

또 코스닥 상장이 되면 이글루시큐리티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직원과 고객, 그리고 주주들이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하고 회사를 창업 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하며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했다.

주식시장에서 IT, 특히 보안관련 분야는 기술력과 탄탄한 회사 이력에도 불구하고 저 평가 돼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벤처의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벤처의 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IT관련주가 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임을 잃은 것 같다. 벤처의 의미는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기술’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확실한 기술보다는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너도나도 회사를 설립했고 보안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은 보안업계가 많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지만 몇 년 전만해도 보안 시장에서 영세한 업체들도 많았으며 확실한 기술을 앞세워 계속 성장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문을 닫는 업체도 많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과 관련된 법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주식시장에서 보안주가 빛을 못 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시선을 달리해 보면 이러한 분단의 아픔이 도리어 성장동력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분야가 IT이고 그 중에서도 보안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잠깐 동안 성장하고 멈추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다. 너무 깊게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IT분야 특히 보안관련 분야는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 된다.

배근득 기자 bob13@

■이득춘 대표는 누구...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고 있다. 지난 4일 회사 설립 이래 가장 중요한 코스닥 상장이 시작됐고 지난 2월 정보보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협회장으로서 중책을 떠맡았다. 이외에도 보안관련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크고 작은 임원직을 수행하며 하루 일정은 백백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는 이런 이 대표를 놓고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주말도 반납하고 일에 매진해보니 이전 이 별명이 오히려 이득보다 더 많이 불린다. 눈 앞에 당장 ‘코스닥’이라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새로운 목표가 시작됐음에도 자신이 맡은 일에는 ‘대충’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협회장이다.

현재 KISIA 협회장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한중일 3국의 보안 관련 협회와 이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일본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항상 넥스트를 준비하자” 주말도 반납하는 워커홀릭

특히 공동으로 컨퍼런스나 전시회를 개최해 국내 보안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거점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미 일본의 보안관련 협회와는 수차례 협력에 관한 얘기가 오갔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일간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까지 협력범위를 넓힌다면 아시아를 바탕으로 한 큰 세력과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득춘 협회장의 비련이다.

물리보안의 대기업과 정보보안의 중소기업이 상생해 융복합 보안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우수한 보안제품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 주고 싶다는게 그의 소망이다.

이런 이 대표의 진취적 행보는 경영철학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의 경영철학은 ‘넥스트(NEXT)를 준비하자’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다음 사업모델을 구상해 왔고 특히 보안 분야에서는 제2단, 3단을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와 더불어 동반 성장해야 할 분야가 ‘보안’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왕초보를 슈퍼개미로 만드는 주식투자 입문서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독하게 분석해 투자하라!”

네이버 No.1 주식카페 ‘스탁시티’ 매니저 이진욱,
슈퍼개미의 주식투자 노하우!

13만 회원이 감동한
네이버 NO.1 대표카페
주식투자의 바이블

주식, 남이 사면 오르고,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주식의 기초를 바로 알고, 독하게 투자하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는 투자전략이 아닌, 이기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

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미르북스에서 출간한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는 주식공부가 어려워 ‘문지마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의 눈에 맞춘 주식투자 입문서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에 앞서 주식이란 무엇인지에서부터 다양한 주식 용어,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심지어 주식의 매도와 매수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식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준다. 또한 특별 부록 ‘황금알을 낳는 유망 테마주’를 통해 그동안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답답해하던 독자들에게 밝은 투자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석, 기술적인 분석, 심지어 주식의 매도와 매수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식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준다. 또한 특별 부록 ‘황금알을 낳는 유망 테마주’를 통해 그동안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답답해하던 독자들에게 밝은 투자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이진욱 지음 | 290쪽 | 정가: 15,000원

문의 02)3141-4421 미르북스

서점 할인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천만의 말일! 인터파크도서는 다릅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1 상품별 200%보상

내가 살 책 클릭 한번이면
2 최저가로 즉시변경

서울/수도권은 기본
3 부산까지 당일배송

인터파크 도서

인터파크서점 어디를 둘러 봐도 이보다 더 팔수는 없다!
도서/음반/DVD 베스트셀러

10,000종 할인!
최저가 할인!

클릭 한 번이면 책 값이 최저가로 즉시 변경! 그것도 모자라서 쿠폰도 도서상품권까지! 실랑 실랑 물어볼 필요도, 자꾸만 내려가는 책 값 이렇게 싸도 되는 거!?

Event. 구매금액대별 할인쿠폰 증정

2,000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3,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7,000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할인

도서/음반/DVD 구매시 사용 가능 선인도서 등 일부상품 제외

INTERPARK Book 주식투자 독하게 하라

KB *b 국민은행 슬림화 · 카드사 분사 통해 경영 효율성 조기 확보

■KB금융지주

국내 금융지주사는 대부분 정부 지분이 많다. 또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없다 보니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며 금융시장 기능 마저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KB금융지주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공식 취임 후 본격적으로 사장단과 이사진을 구성함으로써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KB금융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역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금융 중사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경영진과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의 중요성 '지분 구조에 답'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지분은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4332만2704주(11.21%)이다. 2대주주인 씨티뱅크(CITIBANK,N.A.)는 4035만3823주(10.44%)를 보유하고 있으며 ING 뱅크(ING Bank N.V.)가 1940만1044주(5.02%)로 3대 주주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1924만8845주(4.98%)로 뒤를 잇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지분 구조 특성상 경영진들의 입김이 강하다. 우리금융(예금보험공사 56.97%)이나 IBK기업은행(기획재정부 68.60%)처럼 공적자금 투입이나 국책은행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국민은행처럼 최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작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제외하고 과점적 최대주주가 없다.

따라서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자(CEO)의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KB금융이 그동안 KB카드 분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도 CEO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어윤대 회장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배구조 강화 핵심 변화혁신TFT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어윤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변화혁신테스크포스팀(TFT)"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영권 장악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의 그 중심에 변화혁신 TFT가 있다.

그룹변화혁신TFT는 KB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 조기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핵심전략 과제를 수행한다. 그룹변화혁신TFT 단장은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이다. 그는 어윤대 회장의 경기고 7년 후배이며 고려대 경영대학원 동문이다. KB금융그룹 내에서는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TFT는 ▲신상품/서비스팀 ▲채널/BPR팀 ▲비은행 성장팀 ▲코스트혁신팀 ▲인사혁신팀 ▲리스크관리팀 ▲재무/성과관리팀 ▲전략기획팀 ▲기업문화팀 등 9개 팀과 산하 23개 사업단위를 두고 90여명의 그룹 임직원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KB금융지주 계열사 사장들과 지주 및 은행의 주요 임원진이 참여하는 그룹변화혁신위원회와 외부자문그룹 등이 TFT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막강 이사진 구성 ...계과 갈등 봉합

어윤대 회장은 지난 3일 행장과 부행장 그리고 지주사 인사 및 부서 조정을 완료했으며 주택은행 출신도 배려함으로써 막강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7월에 출범한 어윤대호는 시작부터 대대적인 경영구조 개선에 들어갔다. 관행적이지만 어윤대 회장이 선출된 후, 8명의 KB금융지주 계열사 사장들과 KB은행 13명의 부행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상당수 임원들을 교체했다.

이는 어 회장이 KB금융을 비만증 환자라고 비유하며 체질개선을 하겠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어윤대 회장은 지배 경영 구조를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달 27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 KB금융그룹 임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KB금융그룹이 현대 처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KB금융이 지난 강정원 전 행장 체제에서부터 비롯된 '리스크 관리'와 '이사회 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KB금융이 겪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후유증이 이사회의 지배구조와 결정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외풍에 시달렸다. 어 회장은 내부 조직안정화를 위해 KB국민은행장에 민병덕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을 임명했으며 대외 사업 강화를 위해 임명된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을 발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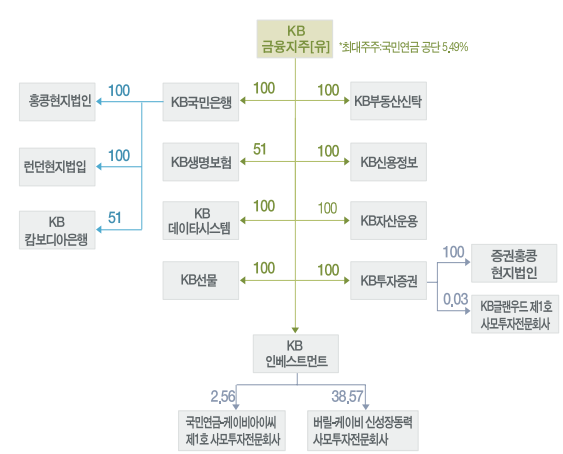
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전체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중점적으로 고려된 부분은 이원화된 그룹사의 전략/해외사업기획/ 홍보기능을 지주에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일 신임 부사장에 윤종규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과 김왕기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 겸 대변인을 선임했다.

윤종규 신임부사장은 CFO(Chief Financial Officer)를 담당한다. 윤 부사장은 국민은행 재무전략기획본부 부행장,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을 지냈으며 삼일회계법인, 김연장의 임원 생활을 통해 재무관련 전문가로 통한다. 전직 기자출신인 김왕기 신임부사장은 그룹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설되는 CPRO (Chief Public Relations Officer)를 담당한다.

고종민 기자 kjm@

KB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 (2010.03.31 현재, 지분율%)



KB금융지주는 그룹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CPRO(Chief Public Relations Officer, 최고 홍보·IR 책임자)를 신설, 홍보부와 IR부를 총괄하게 했다.

또 그룹 경영진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연구소를 신설하고 카드사업 분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드사설립기획단을 신설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부행장 13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을 바꾸는 대대적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 역시 3개 그룹을 없애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은행 측은 기존 13그룹, 20본부, 66부, 2실에서 10그룹, 14본부, 57부, 2실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상품그룹 등 3개 그룹을 폐지하고 신탁·연금본부 등 6개 본부와 9개 부서를 축소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슬림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한옥 전 중동기업영업지원본부장은 기업영업그룹 부행장으로, 허세원 성남영업지원본부장은 마케팅지원 그룹 부행장으로, 박인병 전 서부산업영업지원본부장은 신탁·연금그룹 부행장으로 각각 새로 선임됐다. 김재곤 KB투자증권 부사장은 영업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유석훈 IT개발본부장은 IT그룹 부행장으로 임명됐다.

김옥찬 재무관리그룹 부행장은 전략그룹과 통합해 만들어진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으로 이동했다. 황태성 업무지원그룹 부행장도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으로 이동하고, 이경학 여신그룹 부행장과 최현현 신용카드사업그룹 부행장, 석용수 HR그룹 부행장 등은 유임됐다.

이번 부행장 인사는 국민은행 출신 4명과 주택은행 출신 5명 그리고 옛 국민카드 출신 1명으로 구성해 힘의 균형을 맞췄다.

#비은행 활성화와 신탁탄·KB카드 분사

KB금융은 KB카드를 분사하면서 계열사 지배구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산 구조에 있어서 그룹 내 은행 비중이 자산 기준 98%를 차지해 비 금융권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어윤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기업 재편과 비은행 사업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KB선물, KB자산운용, KB투자증권, KB인베스트먼트, KB생명보험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KB금융지주는 KB생명보험(51%)을 제외하고 모두 100%를 보유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해외 진출 경로는 KB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이 개척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홍콩과 런던에 100%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KB라모디아은행 51% 지분을 보유 중이다. KB투자증권의 경우에는 100% 증권 홍콩 현지법인을 보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KB금융그룹의 KB카드 분사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업계 2위인 KB카드가 독립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한층 자유로워져 마케팅 및 점유율 경쟁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KB카드의 자산 실사와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에 공식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신용카드 취급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1.2%, KB카드가 14.5%, 현대카드가 11.4%, 삼성카드가 11.0%, 롯데카드가 6.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영역확장,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KB생명보험과 KB투자증권의 몸집불리기도 어윤대 회장의 주요 관심사다. 우선적으로 체질개선을 통한 몸집불리기가 우선시되고 인수합병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 회장은 취임식에서 "생명보험 분야를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종합 보험사를 목표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지주 최고 경영자에 오른 어윤대 회장이 그룹의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 개혁을 천명했다. 노찬환 기자 mylifer@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삼성 100년을 이끄는 이병철 · 이건희 · 이재용의 역사와 경영철학 그리고 비전

세계를 움직이는 삼성의 三代 파워

대기업 취재로 잔뼈가 굵은 선후배 기자 3인방, 수십 년에 걸쳐 가까이서 지켜본 삼성을 전격 해부하다!

삼성이 하면 무엇이 다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낸 그 무엇을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 누구나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근면인가, 조직력인가 혹은 청조성인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낼 수 있지만 정곡을 맞출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성의 모든 것을 여러 시각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한 이 한 권의 책을 탐독할 수밖에 없다. 삼성 기업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해답도 바로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초대 문화부장관 이여령

출간 즉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삼성 열전

박정규 · 박찬홍 · 이하늘 지음 | 324쪽 | 13,500원

Tei 02-322-6144 / Fax 02-325-6143 / www.muhan-book.co.kr
 참신한 작가의 글을 기다립니다 muhanbook7@naver.com



두부서 바이오까지...국내 식품기업 부동의 1위



김진수 대표이사

작년 매출 3조8387억...2위 기업과 무려 2조 차이
중국시장서도 눈부신 성장 '글로벌 식품 기업' 지향

CJ제일제당은 국내 최고의 식품 기업이다. 2009년 3조8387억원의 매출을 올려 2위 기업(농심 1조 8456억원)과의 매출액 차이는 2조 원 가까이 된다. 2002년 CJ제일제당이 식품업계

최초로 2조원 매출을 돌파한 이후, 아직까지 2조원 매출을 넘는 회사가 나오지 못해 CJ의 '독주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은 식품업계에서

3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방증인 셈이다. CJ제일제당은 소제식품과 가공식품, 바이오, 사료, 제약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CJ제일제당 연도별 실적표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상반기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매출	1조9056억원	3조8387억원	3조4949억원	2조8757억원	2조6504억원	2조4559억원
영업이익	1046억원	2619억원	2677억원	2601억원	1917억원	1925억원
순이익	5180억원	2677억원	254억원	지주사전환	1399억원	1370억원

지나해 환율 안정과 소비심리 회복, 시장점유율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 3조8387억원, 영업이익 2619억원, 순이익 2677억원원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1조9056억원, 영업이익 1046억원, 순이익 5180억원을 기록했다. 국제 원당시세의 급등세로 인하여 상반기 매출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국내 최대 식품기업이지만,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로 '글로벌 식품종합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두부 시장에서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중국 하얼빈에서 신(新) 소제식품인 쌀 단백질이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쌀 단백질은 쌀(미강)에서 추출하는 식물성 단백질로, 소시지, 피자, 뉴트리션바,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쓰일 수 있다.

설탕, 밀가루 등 국제 곡물가와

환율에 의한 변동성이 크고 판매가에서 원료 비중이 높아 마진이 좋지 않은 기존 소제식품과는 달리, 쌀 단백질은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사업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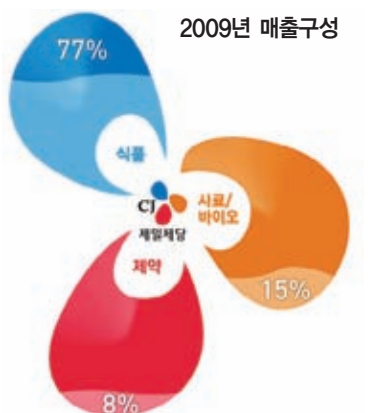
올해 호(好) 실적의 큰 동력으로 작용한 해외 바이오업종의 실적도 계속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핵산은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라인 증설도 앞두고 있어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일 전망이다.

가축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도 지난해 3분기부터 판매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이래 계속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건강 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산재료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품업계 최대 규모인 500여명의 R&D 인력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리



드하는 다양한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여개가 넘는 품목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압도적인 제품력에 기인한 이런 호성적은 CJ제일제당이 안정적인 기업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식품제조업은 산업계 중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식품산업 평균 투자비율(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투자는 바로 R&D"라며 "신소제식품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중국 라오청에 위치한 바이오 공장에서 직원들이 생산라인 작업 중입니다.

웅진코웨이 2009 한국의 경제대상 마케팅 종합대상 수상(2년 연속)

공기 중의 바이러스 걱정 웅진케어스 이기에 안심입니다

케어스만의 특수 항바이러스 필터 장착

케어스 공기청정기만의 특수 항바이러스 필터는 공기 중의 유해 바이러스를 걸러주어 건강한 실내 공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공기도 씻겨주세요

총남대 독감 바이러스 연구소 서상희 교수 연구팀 실험결과

유해 바이러스 제거 능력 인정!

"케어스 항바이러스 필터는 실험결과 바이러스 제거의 강력한 성능을 인정 받았습니다."

최근 설탕가격 인상이 하반기 실적진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국제 원당 가격 경우 최근 브라질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수급문제에 따른 상승세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추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빈약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본 제품은 공기정화기로서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라”

이재현 회장 철학담은 'CJ도너스캠프' 운영

"가난으로 인해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다. CJ그룹의 사회공헌 키워드는 CJ나눔재단이 운영하는 CJ도너스캠프(www.donorscamp.org)다. CJ도너스캠프의 핵심 분야는 저소득층 공부방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1999년 사회공헌 전담팀 신설로 시작해 2005년 비영리재단인 CJ나눔재단이 꾸려졌다. CJ도너스캠프는 공부방 교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사이트에 올리면 기부자가 제안서를 검색한 후 후원하고 싶은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지원사항을 요청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요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현장 중심적 기부 시스템이다. 기부자들이 CJ도너스캠프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칭그랜트' 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00원을 기부하면 CJ도 1000원을 기부해 2000원이 공부방에 후원된다. 금액

제한은 없다. 기부금이 클수록 CJ의 기부금도 커진다.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한 금액이 두 배가 되어 언제 어느 곳에 쓰이든지 CJ도너스캠프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기부자와 수혜자인 공부방간의 소통이 활발하다. CJ나눔재단 설립 당시 함께 오픈한 'CJ도너스캠프'는 기업사회공헌 업계에서 의미가 크다. CJ가 처음으로 기업 온라인 기부 사이트를 만들어 기업들의 온라인 기부문화의 시작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 온라인 기부 사이트는 당시로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틀이었다. 때문에 당시 많은 기업들이 CJ도너스캠프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CJ나눔재단은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3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전국 2,160개 저소득층 공부방의 5만여명의 아동들에게 교육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CJ도너스캠프는 공부방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직업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CJ의 계열사에 속한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CJ마구마구 프로야구와 손잡고 'CJ도너스캠프와 함께 하는 나눔 10번타자'라는 타이틀의 사회공헌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장에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어린이를 무료로 초청해 관람하게 해주는 관공서 기부를 실시한다. 프로야구 관중 수 1만명당 10만 원씩 기부금이 적립되고 이 기부금은 꿈나무 예비 스포츠인을 위한 야구 고실 등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애널리스트가 본 CJ제일제당

“설탕가격 인상 긍정적...목표주가 30만원”

CJ제일제당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모멘텀에 대한 긍정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CJ제일제당의 목표주가를 3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설탕가격 인상이 하반기 실적진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국제 원당 가격 경우 최근 브라질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수급문제에 따른 상승세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상승추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속한다면 국제 원당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도 투자이견 매수와 목표주가 28만5000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가매수 전략을 내놨다. 22만~23만원에서 매수해 27만~28만원에서의 차익실현 전략이다. 올 하반기 설탕사업의 마진 갭 확대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가장 HN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설탕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이익 개선을 반영해 CJ제일제당의 올해와 내년 순이익 전망을 전년 대비 각각 5.5%와 4.5%를 상향 제시했다. 지 애널리스트는 "설탕가격 판매가격 인상으로 추가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가 하방경직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설탕가격 인상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곡물가격이 급락할 경우 강력한 주가 촉매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의 MSG(식품첨가제) 업체가 3,000톤 규모로 10년 말 해산 시장에 신규 진입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위협요소다. 생산량이 확대될 경우 해산 가격 급락이 현재처럼 떨어졌다는 점에서 투자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민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지금 대학로는 '이열치열' 중

클로저...라이어...소극장들 연극 열기 '후끈'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서울 대학로 소극장은 연극 공연열기로 뜨겁다. 텔런트 문근영이 사상 첫 도전하는 연극 <클로저>를 비롯해 대학로뿐만 아니라 인천, 창원 등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라이어 (1~3탄)>, 내달 선보이는 <친정엄마와 2박3일> 등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근영, 엄기준, 최광일 등이 출연하는 <클로저>는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특히 문근영은 연기 인생 처음으로 소극장 무대에 서며 관객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고 엄기준은 영화·드라마·뮤지컬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다.

<클로저>는 지난 1997년 런던 비평가협회 최우수 창작연극상을 수상한데 이어 1999년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 최우수 해외연극상을 수상한 거작이다. 전 세계 관객을 울린 패트릭 마버의 원작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번 작품은 지난 6일부터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작년 초 <라이어 1탄> 강남공연을 시작으로 <라이어 2탄>과 <라이어 3탄>을 대학로 소극장에서 펼쳐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



<클로저>

어 시리즈)는 올 여름에도 계속되고 있다.

1983년 영국 런던의 사프테스베리 극장에서 코메디극단 창단공연으로 올려진 작품으로 지금까지 끊임없는 호응 속에 장기 공연 중이다.

영국의 극작가 겸 연출가 레이 쿨니(Ray Cooney)의 작품으로 파파 프로덕션이 레이쿨니와 독점계약을 맺고 <라이어>를 한국적으로 각색해 무더위에 지친 관객들에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라이어>

서울 강남과 대학로를 시작으로 흥행 여세를 몰아 <라이어 1탄>이 현재 경남 창원에서 공연 중이며 내달 말까지 펼쳐진다. 서울 혜화동(대학로)에 위치한 샘터퍼라새극장 1관과 2관에서 각각 <라이어 2탄>과 <라이어 3탄>이 공연되고 있다.

또한 <육방방 고양이>와 <오구> <여보, 고미워>, <보일 보일 1탄> 등이 서로 다른 콘셉트로 각 세대층에게 어필하며 여름 대학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열기를 몰아 <친정엄마와 2박3일>이라는 작품이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내달 10일부터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막을 올리는 이 작품은 2009 국회사상 올해의 연극부문 수상작이다. 대한민국 연극 최초 해외투어(지난 2월 LA, 뉴욕 투어 매진)를 한 작품이기도 하다. 배우 강부자와 전미선이 각각 친정엄마와 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박태진 기자 tjipppa@

가요계 MR제거 영상 공개 후폭풍은

세븐 · 동방신기 · 원더걸스 · 카라...가창력 희비 엇갈려

'MR제거 동영상'이 전 가수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MR(Music Recorded) 제거란, 녹음돼 있는 음악 반주와 코러스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능으로 가수가 부르는 노래 부분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손담비가 MR제거 영상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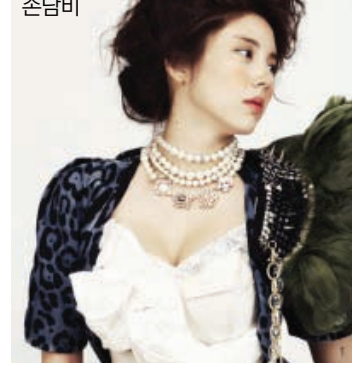
예초 'MR제거 동영상'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1월 신인가수 오리(Ori) 무대부터다. KBS <뮤직뱅크>에 출연한 오리의 가창력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한 네티즌이 MR을 제거한 동영상 올리면서 오리의 가창력에 대해 한층 더 논란이 커졌다.

이후 네티즌들은 늘 가창력 논란을 달고 다니는 몇몇 가수들의 MR을 제거한 동영상 유포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역시 아이돌이었다.

소녀시대, 빅뱅, 동방신기 등의 무대에서 MR 제거 영상이 유포되자 동영상 본 누리꾼들은 가수 세븐과 동방신기, 빅뱅 등에 대해서 "라이브를



세븐



손담비

MR제거 영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세븐이다. 지난 29일 케이블방송 Mnet의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 신고식을 가진 세븐은 빅뱅의 탑과 부른 '디지털 바운스'와 타이틀 곡 '베테루게더'에서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라이브를 선보여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세븐은 아마도 MR제거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역시 MR제거의 최대수혜자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MR제거 영상 유포가 불편한 관계자들도 있다. 바로 가요계 관계자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몇몇 동영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라이브의 경우 당일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창력의 차이가 날 때가 있다"며 "진짜 평가하려면 한두 개 동영상만 아니라, 많은 표본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정말 잘한다", "이렇게 실력과 가수인 줄은 몰랐다"는 호평을 내린 반면 가수 원더걸스와 카라, 신인가수 태군의 경우 "가수가 노래를 거의 안 부른다", "기계가 노래를 다 부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스포츠 스타는 아나운서를 좋아해"

김태균-김석류 커플 계보 이어



김태균-김석류

김남일-김보민

서장훈-오정연

야구선수 김태균과 김석류 아나운서의 결혼 발표로 스포츠 선수-아나운서의 커플 탄생을 예고돼 있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축구, 농구에서는 각각 김남일-김보민, 서장훈-오정연 부부가 있지만 야구선수-아나운서 커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커플은 김태균이 일본 프로야구에 입단해 적응기간 중 방송사 야구 전문 아나운서와 취재원 관계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장훈-오정연 부부도 비슷한 사례다. 지난 2008년 1월 서장훈 선수는 오정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KBS 1TV '비바 점프볼'에 출연한 것이 인연이 돼 2008년 5월 11일부터 교제를 시작, 결혼에 골

인했다.

방송 프로그램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또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기도 한다. 월드컵 4강 진출로 축구스타의 대열에 합류한 김남일과 이듬해 KBS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보민 아나운서는 지인의 소개로 연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듯 스포츠 선수와 아나운서의 만남은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힘을 겹쳐 보이지만 스포츠선수가 일단 스타급으로 성장하게 되면 아나운서와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성사된다는 것.

특히 스포츠 스타는 이미 입증 받은 실력과 성실성, 그리고 짧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

는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미모의 아나운서, 배우 등의 마음을 사기에 메리트가 있다는 평이다.

또 스포츠 선수들이 일찍 가정을 꾸려 안정된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 열애의 적극성으로 이어져 열애 이후 결혼 확률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나운서의 지적인 미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온다. 스포츠에 몰입한 스포츠 스타의 경우 학업, 사회적, 미모에서 입증 받은 아나운서가 더할 나위없는 최고의 신부감으로 느껴지는 것.

앞으로 스포츠 스타와 아나운서 커플 계보잇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스포츠팬들의 관심사다.

김현정 기자 khj@

재범 올림픽 공원 대관불허 의혹 제기



박재범(사진)이 팬미팅을 위한 대관 신청에서 올림픽공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팬미팅 주최측이 의혹을 제기했다. 2PM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에 걸쳐 올림픽공원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재범의 콘서트는 허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올림픽공원 측은 "박재범이 팬미팅을 올림픽 공원에서 열 경우 2PM 팬들이 시위 및 항의하겠단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림픽공원이 공공시설인 만큼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불허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때문에 박재범은 오는 28일과 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체육관에서 국내의 팬들을 상대로 팬미팅을 연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김탁구만 있나" 마준이도 뜬다

KBS 2TV <재방송 김탁구>의 마준역을 맡고 있는 주원(23, 본명 문준원(사진))이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원은 185cm의 큰 키와 작은 얼굴로 전체적인 비율까지 강동원과 흡사한 데다 목소리마저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해 제2의 강동원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방송 김탁구>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악역임에도 매력을 뽐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 시청자 게시판에는 "주원인 목소리도 좋고 이름도 이쁘고..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등 팬심을 담은 글들이 넘쳐났다.

김현정 기자 khj@



신인 걸그룹 초콜릿 역대 광고 계약 눈길

신인 5인조 걸그룹 초콜릿(사진)이 패션 타운 누촌과 역대 광고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누촌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체결, 앞으로 이뤄지는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함께 해나갈 전망이다.

소속사 에이치라인 엔터테인먼트는 "초콜릿은 이달 중 데뷔 예정으로 이미 녹음은 완료된 상태이고, 톡톡 튀는 안무와 음악, 패션으로 새로운 대중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진 기자 tjipppa@

Trofish GAIA

Product Info 02.2190.7013 / Shop Info 02.408.8626



하이팅!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LG그룹편 |

한국 전자산업의 호시

연암 구인회 <제 6화 체념은 신속하게> 글·만화 유영수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성공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에 도전하라."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이투데이

이투데이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투데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이투데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이 문경세계에서 수안보까지 약 20km를 걸으며 인턴사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사랑의 걷기'

찜통더위 속 인턴사원들과 함께 20km 행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걷기'를 통한 사랑실천에 나섰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인턴사원, 임직원 등 약 300명과 함께 무더위 속에서도 문경세계 도립공원에서 수안보 리조트까지 약 20km를 걷는 '사랑의 행진'을 실시했다. 이번 '사랑의 행진'은 참가자 1명이 1km를 걸을 때마다 해당 소속사에서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적립하며, 적립된 후원금 약 1억원은 백혈병, 뇌경색 등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 임직원 및 가족 아홉명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번 행진구간인 문경세계는 김승연 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하

고 나서 1년쯤 지난 후, 한화 임직원들과 처음으로 그룹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걸었던 길로, 한화가 죽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기원과 인턴사원들이 앞으로 남은 학업 및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정됐다고 그룹측은 전했다. 김승연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나이와 직급의 벽을 넘어 서로 간의 격차를 아끼지 않았던 진한 동료애를 잊지 말아달라"며 "힘들고 어려운 때 일수록 더욱 빛을 발휘해 온 한화의 신용과 의리의 전통을 소중히 간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사랑의 행진'

에 이어 6일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인턴사원들과 별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룹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인생의 선배, 아버지로서 당부의 말과 함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일궈낸 경영철학을 이야기하고, 또한 인턴사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그룹의 '사랑의 행진'은 지난 2005년 투병생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그룹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2005년, 2006년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박철근 기자 ckpark@

버핏을 지키는 6명의 남자들

포춘誌 핵심브레인 CEO 소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혼자 가 아니었다. 미국 종합 경제지 포춘은 최근 버핏의 측근이자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브레인인 6명의 CEO를 소개했다. 매트 로스는 지난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철도회사 발링턴 노던산타페 인수로 돋보이는 사업 확장을 이룬데 일조한 인물. 그는 버핏의 주목받는 브레인이자 발링턴노던의 최고경영자(CEO)로 지속적인 버크셔의 변명을 위한 능력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워런 버핏의 최고 투자중 하나로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자동차 보험회사 게이코의 최고경영자(CEO) 토니 나이스러 역시 버핏의 핵심 참모로 거론된다. 그는 지난 1996년 이래 게이코의 자동차보험 부문 점유율이 2.5%에서 8.1%까지 성장하도록 만든 주인공이다. 아이오아 주 소재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주력하는 미드아메리

카 에너지 홀딩스의 그래픽 아벨 CEO는 M&A의 귀재로 불린다. 그는 지난 2008년 데이비드 소를 회장으로부터 CEO자리를 이어 받아 버크셔의 인수합병을 여러 차례 성사시켰다. 버크셔 재보험 부문을 이끌고 있는 아지트 제인은 1985년부터 버크셔의 재보험 사업 부문을 맡은 후 재보험 부문을 버크셔의 최강 팀으로 변신시켰다. 제너럴리가 AIG의 헥그린버그 최고경영자(CEO)와 불법거래 혐의로 법정에 선 이후 글로벌 재보험 회사를 이끌게 된 태드 테트로스는 금융위기를 틈타 부서를 교묘히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너럴리를 이끌었다. 데이브 소를 CEO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98년 인수한 전 세계 자가용 비행기 제공 기업 네트제츠는 물론 미드아메리칸에너지 홀딩스와 존스 맨빌 두 개의 사업부문의 회장이다. 그는 버핏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전자업계 교수 앞세워 디자인전쟁

삼성 정지홍 교수 영입에 LG 이진표 교수로 맞불



한 디자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초에 스마트폰 디자인 강화를 위해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정지홍 교수(사진 왼쪽)를 상무급으로 영입했다. 정 교수는 무선디자인그룹에서 휴대전화 이용자 체험(UX, User Experience)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 교수는 사용자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시스템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구, 앞으로 스마트폰과 관련한 UX 디자인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지난 3일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이진표 교수를 디자인경영센터장으로 영입, 디자인 경쟁에 맞불을 놓았다. 이 교수는 중앙대학교에서 공업 디자인을 전공한 뒤 일본 쓰쿠바대에서 산업디자인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그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LG전자는 "삶 대한 진지한 관찰을 바탕으로 편안함과 즐거운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자인을 추구해 왔다"며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인 이 교수가 학문적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LG전자의 디자인 위상을 한 층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철근 기자 ckpark@

계룡건설 총괄부사장에 이승찬 전무



이 부사장은 대전고과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2002년 3월 계룡건설에 관리본부 임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2004년 상무, 2007년 관리본부장 전무로 임명되는 등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강명훈 기자 augustin@

계룡건설 창업주 이인규 명예회장의 외아들이 이승찬 관리본부장 전무(35)가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용은 '챔피언십 만찬'은 한식으로

김윤옥 여사 메뉴 조연도

지난해 아시아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PGA투어 메이저 챔피언에 올랐던 '바람의 아들' 양용은(38)이 PGA챔피언십 골프대회에 오랜 전통인 '우승자 만찬(Champion's Dinner)'을 '한식 잔치'로 타이거 우즈 필 미를슨 등 동료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배웠다. 오는 12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폴러의 위슬링 스트레이츠 골프장에서 시작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제92회 PGA 챔피언십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챔피언스 디너'는 전년도 우승자가 메뉴를 정하는 것이 관례. '디펜딩 챔피언'의 이름으로 만찬 참가자를 초청하고 만찬 메뉴와 선물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츠컵에서도 양념 갈비를 만찬 때 준비해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양용은이 이번 만찬

을 한식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왔다. 양용은은 4월 중국에서 열린 볼보 차이나오픈 우승을 차지한 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와 만나 PGA챔피언십의 우승자 만찬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의 지원을 요청해 세부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우승자 만찬에는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총재를 맡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팔을 걷어 붙이고 돕고 있어 이채롭다. 김 여사는 말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의 박효남 총주방장을 추천해 만찬 준비를 돕게 했고 메뉴를 정하는데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효남 총주방장은 보조 요리사 세 명과 함께 직접 한식 풀코스 요리를 준비해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이상 미국)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KOTRA, 한식재단도 이번 양용은의 '한식 잔



〈연합뉴스〉

치'에 힘을 보태 올해 PGA챔피언십의 우승자 만찬은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열리게 된 셈이다. 리셉션 메뉴는 건구절, 오색밀쌈, 꼬치산적, 대하 잣 무침으로 정해졌고 이어 잡채와 모듬전, 불고기, 쌀 야채, 밥과 반찬, 시금치된장국이 나간다. 디저트로 수삼 대추단자와 인삼캔디, 과일이 준비됐다. 〈연합뉴스〉

George Balanchine's

THE NUTCRACKER™

호두까기 인형

국내 최초 조지 발란신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을 만날 기회
역대 호두까기 인형 중 가장 화려한 무대

1차 티켓 오픈!

OREGON BALLET THEATRE
CHRISTOPHER STOWELL / ARTISTIC DIRECTOR

2010. 8. 15 SUN ~ 2010. 8. 22 SUN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일정: 8/15(일), 8/18(수), 8/21(토)-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2회공연 | 8/17(화)-오후 7시 | 8/19(목), 8/20(금)-오후 7시 30분 | 8/22(일)-오후 2시(월요일 공연임) 공연문의: 1544-1681
티켓: VIP 120,000 / R 100,000 / S 70,000 / A 50,000 / B 20,000 예매: SAC ticket 02-580-1300 AUCTION 티켓 1566-1369 인터넷파크 티켓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주최: Promo Factory 주관: New York Times 제공: SAC ticket 협찬: 후원: 주한미국 대사관 협력: www.thenutcracker.co.kr

말말말

▲김무성(국회의원) = "박근혜 전 대표(는) 민주주의 대한 개념과 사교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며)

▲로버트 기브스(미국 백악관 대변인) =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존재하는 FTA협상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지난 3일 정세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FTA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봄(가수) = "2년 동안 몰랐습니다. 소녀시대가 동료가 아닌 사람이 아닌 신(神)이라는 것을..." (지난 3일 방송된 예능프로그램에 친필로 쓴 편지를 보내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진(가수) = "간만에 투덜대고 싶네. 월드컵 때문에 출연 많이 하고 2곡만 부르라더니 빙상의 신에게는 3곡을 부르라하시네. 대단하시군요, 하하하"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같이 올리고 음악 방송을 비판하며)

홍석조 기자 pe613@

현대건설 '희망 도시락 나눔활동' 현대건설가족 자원봉사단이 최근 영등포 사회복지관에 방문,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가족 자원봉사단은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희망 도시락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건설〉

서울시 시민소통특보에 황정일씨 내정

서울시는 민선 5기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 구현을 지원할 시민소통특별위원(47) 전 황정일(47) 전 고객만족추진단장을 내정했다. 1급 상당인 시민소통특보는 시장 직속으로서 시민단체 관련 업무와 소통채널 확대, 민원조정 업무를 맡는다. 황 내정자는 1988년 서울대 축산학과를 나온 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다시 입학해 1992년 졸업했다. 오세훈 시장이 국회의원을 하던 2000~2004년 보좌관으로 일했고 오 시장 시절인 2006년에는 비서실장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120다산콜센터'를 만들고 운영해온 황 내정자는 "소통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 천만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악~!!!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공연이 있답니다!

Totally Rad! 여성 프랑 AWESOME 80S PROM

Great for Groups! 특별한 날에! Bachelorette Parties, Birthdays, Girls Night Out and More!

전화주세요! 1544-1681 놀라운일이 벌어집니다! www.AweSomeProm.co.kr

이태원 KINGCLUB the Lounge 2010. May. 22(Sat) - Open Run: 매주 토요일 PM 7:30

타켓 30,000 원 문의: 1544-1681

이태원 AUCION 티켓 1566-1369 인터넷파크 티켓 1588-1555 주최: New York Times 제공: SAC ticket 협찬: 후원: 주한미국 대사관 협력: www.thenutcracker.co.kr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첫 무대라 긴장한 신인가수.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주인공 대신 나와서인지
다들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아빠~ 최고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관객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네요.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 이야기-
포스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